

韓國文學史 時代區分의 方案葛議

金 錫 夏*

I. 文學과 文學史

III. 轉換期의 理論

II. 장르의 創設과 展開

IV. 時代區分의 構想

I. 文學과 文學史

文學史는 文學의 歷史이다. 文學이란 術語는 많은 意味를 內包하고 있다. 東洋의 傳統的 概念으로는 廣意의 文學과 狹意의 文學이 있어,⁽¹⁾ 廣義의 文學은 文字로 表記된 <文의 學> 즉 四書三經은 물론 典章 學術 雜記 藝文 등을 總括한 것이며, 狹意의 文學은 藝文 즉 文藝의 作品인 詩歌 小說 戲曲 등을 專稱한 것이다. 中國 先秦時代로부터 漢代까지는 廣意로 解釋되어 漢書 學問의 總稱이었고,⁽²⁾ 魏晉以後 狹意로 해석되어 獨自의 地位를 차지하였다.⁽³⁾ 唐宋以後는 詩歌 文章 즉 藝文이란 뜻으로 많이 使用되었다.⁽⁴⁾ 文學에 대한 우리 나라 在來의 解釋도 大體로 여기에 準해 왔으며, 開化期로부터 유럽文學의 輸入과 함께 文學은 藝術의 한 分科로서 「人間的 體驗을 想像을 通해서 言語를 媒介로 하여 表現하는 文藝文學 또는 美文學」의 概念으로 認識되어 왔다.

<文者貫道之器>라 하여 文學이 思想 哲學에 隸屬되어 있던 古典文學史研究에 있어서 그 對象, 範圍, 그리고 限界를 定함에는 이런 傳統的 文學觀이 考慮되어야 할 것이며, 開化期 以來의

* 檀國大學校 文理科大學教授, 韓國文學

(1) cf. 비단 東洋의 觀念 뿐만 아니라, 이를 테면, 美國派 比較文學論者인 르네·웰렉 같은 이도, <文學>을 定義하여

1. Everything in Print

2. Greet Books

3. Imaginative Literature

로 가름하여 說明하고 있다. 곧 1.과 2.는 廣義로 본 文學의 範疇가 되겠고, 3.은 狹意의 概念이라 하겠다.

(Rene Wellek & Austin Warren, *The Nature of Literature, Theory of Literature*, London, 1955, pp. 20—28 [passim])

(2) 先秦時代의 文學觀은 「論語」先進篇「文學子遊子夏疏若文章博學則有子遊子夏二人也」의 廣義의 解釋을 비롯하여 墨子(非命), 荀子(大略 王制), 韓非子(鄭書五蠹) 등에 모두 廣義로 使用되었다.

(3) 魏晉以後는 所謂 狹意로 使用되어 「三國志」王粲傳에 「文帝爲五官將及平厚君植皆好文學」이라 하였고, 宋文帝時의 儒學, 文學, 史學(四館)의 文學은 모두 이에 속한다. 또 「世說新語」의 文學, 南齊書의 「文學傳」도 狹意의 것으로 藝文의 뜻이다.

(4) 唐宋以後의 文學은 詩歌 文章의 뜻으로 使用되었다. 宋書「雷次宗傳」에 「元嘉十五年徵次宗至京師開館於鷄龍山聚徒教授置生百餘人會稽朱膺之潁川庾蔚之并 以儒學監總諸生時國子學未立上留心藝術使丹陽尹何尚之立玄學太子率更令何承天立史學司徒參軍謝立文學凡四學并建」

新文學史 내지 現代文學史의 경우는 西歐의 文學解釋과 概念을 適用해야 될 것이다.

결국 文學이란 人間이 自然 社會 人間關係와 같은 客體에서 取捨한 Subject를 言語를 媒介로 해서 具像化한 創作的 美文學, 그를 어떤 規準에서 評價하는 批評文學, 科學의 視野에서 이들을 다시 學的으로 體系化하는 文藝學, 또는 學問을 總稱하는 것이다.

文學史는 文學이 發生하고 發展해온 歷史的 過程을 通時的으로 研究 考察하는 學術的 文藝科學이며 歷史的 秩序의 體系化다. 그러므로 藝術史의 一分科이기도 하고, 歷史 文化史의 한 分野일 수도 있다.

文學史는 廣圍의 作家 作品의 歷史이며, 장르(genre)의 發展史이며, 文學에 反映된 制度史인 同時에 그 民族의 眞實한 精神史이기도 하다.

廣圍의 作家 作品이라 함은 文藝的 創作者와 作品은 물론 同類의 範疇에 內包되는 學術的 著作者를 뜻하는 것이며, 장르의 發展史라고 하는 것은 文學史가 文學장르의 生成 發展 消滅이라는 過程에서 把握 認識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이며, 이런 研究方法은 向後에도 바람직한 文學史研究의 領域이 될 것이다. 文學이 制度史인 所以는 文學이 歷史 속에서 하나의 制度로서 存在하기 때문이고, 그것이 그 民族의 眞實한 精神史라 함은 歷史發展의 動力으로서의 民族精神 혹은 國民精神은 그 民族構成員의 長久한 生活와 思想 感情 등의 蓄積된 歷史 속에서 抽出된 一種 民族固有의 Energy인 이를 評價하기 위함이다. 文學史는 一般歷史가 普通 經濟的・政治的要因 등에 의해서 發展하는데 비해서, 보다 形而上學的 精神에서 緣由하고 있다. 文學은 多樣한 想像의 所産이라고 하는 바 이 想像은 精神의 產物인 것이다. 여기에 提起되는 것은 자연 民族精神 國民精神과 같은 것인데 Hegel類의 觀念論⁵⁾으로 다루어 絕對精神을 云謂하는 것은 아니지만, 民族精神은 恒常 그 民族固有의 것을 指向하며 歷史와 文化發展의 原動力이 되고 回歸點이 되고 있음을 看過할 수 없다. 우리는 韓民族의 多難한 歷史 속에서 그것을 보아 왔고, 우리 文化의 屈曲 속에서 그를 認識할 수 있다. 民族精神은 超國家의 外來的要素를 受容하는 경 우일지라도 異質의要素 異質의文化類型을 排除한다. 이른 바 同化한다는 것도 實은 異質의인 것을 主體的인 것으로 濾過하고 除去 혹은 吸收한다는 意味가 되는 것인 때문이다.

歷史는 循環한다고도 하지만 同一한 事件은 두 번 다시는 일어나지 않으며 되풀이되는 수는 더욱 없다. 一度性은 歷史의 原理이며 哲學인데 장르의 歷史로서의 文學史는 장르의 創設者와 그 追從者 즉 亞流(Epigonon)의 歷史인 것이다. 뚜렷한 genre일수록 偉大한 創設者와 많은 亞流의 作品 作家를 追從케 하여 큰 group을 形成하게 되고 歷史的 文學的 意味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이 文學 group은 文學史의 발전에 貢獻하게 된다. 가령 高麗 高宗時의 竹林七賢, 時調 文壇의 敬亭山歌壇, 申在孝의 판소리歌壇을 우리는 그 例로서 들 수 있다. 文學의 장르의 創設

(5) Hegel의 <歷史哲學>에 의하면 <모든 文化와 民族圈은 각종의 樣式으로서 發展한다. 모든 時代는 각종 段階의 文化를 包含하고 있다. 이를 歷史에 있어 非同時性의 原理라고 한다. 歷史를 豐富하게 하는 것은 文化의 여러 段階의 展開를 뜻하는 것이다.>

과 展開에 의해서 文學史가 發展하는 反面에 失敗創設과 失敗展開에 의해서 文學史는 停滯 斷絶 되기도 한다. 韓國文學史의 境遇, 景幾體歌는 如斯한 失敗創設과 失敗展開로 인한 停滯 斷絶現象의 一例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 자연 文學史의 系譜의 罅이 생기는 것이다. 그리고 文學史의 過程은 豫測할 수 없는 價値를 創造한다. 文學史의 價値는 美的價値의 系列이기 때문에 文學史는 人間(民族)의 美的創造力을 基本으로 해서 綜合 考察해야 한다. 民族의 Pathos, 美的氣質 등 美學的追求와 藝術哲學의 接近을 통한 文學史研究는 또 하나의 有望한 文學史研究의 領域이라 생각되는 것이다. 假令 新羅藝術 全般에 흐르는 潑刺한 基調, 高句麗壁畫에 反映된 氣韻生動하는 生物的彈力性, 高麗磁器에 投影된 悲哀의 色調等 同時期の 時代文學 性格에 나타난 精神內奧의 合致 主潮의 同一性에 대해서 文學史家는 또한 注目해야 한다. 同時に 相互의 關係와 作用도 充分히 考慮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文學史의 研究者는 그 歷史 속에 흐르는, 가령 壯嚴美, 靜寂美, 淡泊한 맛, 의젓한 멋, 은근과 같은 美的 價値體系를 찾아야 할 것이다.

美的價値體系와 系列은 곧 文學史의 文藝的 傳統이요 深化된 精神과 觀照된 藝術의 果實인 것이다. 文學史는 創造와 展開의 歷史이고, 創造는 無盡藏한 精神의 可能性이며, 그 蓄積은 特質과 傳統을 形成한다. 이리하여 文學史의 過程은 이러한 價値判斷에 의해서도 이루어진다. 歷史의 으로 볼 때는 文學史의 研究는 19世紀 精神史의 一環으로 自然科學의 方法論이 導入되어 進化論으로 出發했으며, 한편 歷史學과 言語學의 急激한 發達로 인한 國民性的 觀念과 民族觀의 定立에 수반해서 民族精神을 基調로 國民別의 作品群과 作家群을 時代別로 區分해서 研究함으로서 시작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國民文學史의 方法으로 1880年 獨逸에서 비롯되어 1890年代에는 프랑스, 1900年代에는 英國, 1920年代에는 美國 등으로 傳播된 것이다. 國民文學史로서의 文學史의 方法은 民族精神과 國民性的 追求와 確立 위에 時代別로 區分된 장르別 文學發展史라고 할 수 있다. 如斯한 方法은 지금까지 가장 普遍化된 文學史의 方法으로 國民文學의 世界文學史의 聯關性을 考慮에 넣는다고 하면 文學史研究의 한 古典的方法으로 看做될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文學史는 比較文學의 歷史이기도 하다.

「比較文學은 文學史의 한 分野이다.」⁽⁶⁾

文學이 主體的으로 創造될 경우라 할지라도 外來的影響과 受容의 關係는 辯證法的 統一과 止揚을 이룩한다. 中國文學의 文章類型이 韓國文學에 原型대로 移植되어서 一列舉하면, 古詩 辭賦 絕句 律詩 表章 奏議 書論 銘誌 등과 같이——조금도 變改없이 옮겨진 경우도 들 수는 있지만 大體로는 장르의 變異를 통해서 受容되는 것이다. 따라서 創造的 要素와 外來的 要素를 判別하는 放出體(Emetteur)와 受容體(Recepteur) 간의 同異性研究, 源泉研究, 媒介者의 研究는 重要하다. 특히 中國文學의 支配的 影響을 받으면서 發展해온 韓國 古典文學史와 유럽 및 日本文學의 影響圈에 있던 近代以後 新文學史의 研究方法으로써 比較文學의 試圖는 適切한 方法論이

(6) M.F. Guyard의 *La littérature Comparée* (1961)에 붙인 Jean Marie Carée의 序文 參照.

아닐 수 없다.

文學은 藝術의 創作으로서 獨自의인 發展을 한다고 하지만 經濟 政治 社會 文學의 發展史와 軌를 같이 한다. 文學史와 經濟史 政治史 文化史가 반드시 一致하지는 않지만은 文學이 人間의 想像의 產物이요 生活의 反映인 以上 經濟的生活 政治的生活 文化的生活은 모든 文學 속에 投射되지 않을 수 없고, 經濟 政治 文化의 背景은 文學史의 外廓이 되지 않을 수 없다. 近來 New Criticism과 같은 文學의 言語的 藝術의 條件만을 對象으로 作品을 分析 評價하는 方法은 史的 意識과 直觀을 缺如하고 있는 것이기에 文學史研究의 方法論으로서는 止揚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筆者의 생각으로는 첫째 經濟, 둘째 政治, 셋째 文化에서 演繹되는 一時代의 性格과 同時代의 文學의 主潮와 傾向의 合致 非合致, 즉 異同性和 聯關性研究를 文學史研究의 重要な 準備의 補助方法으로 採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더우기 展開없이 이어온 文學史의 研究에 있어 叙上한 바 背景論의 研究의 比重은 思想 哲學 宗教的 背景研究와 아울러 매우 重要하다고 보는 것이다.

끝으로 韓國文學史研究에 있어 論難되는 漢文學의 取捨選擇 문제이다. 우선 이에 관한 陶南 趙潤濟博士의 見解를 그의 國文學史에서 引用해 보면, 「韓國의 漢文學은 詩 賦 論 策 序 記 跋 등을 爲主로 한데 대하여 純韓國文學은 詩歌 小說 등의 文藝를 中心으로 하여 發達하였다는 特質을 考慮하여 說話 小說 등은 비록 漢文으로 表記되었나 하더라도 純韓國文學部門에 넣어서 考察함이 妥當하다」로 되어 있다. 즉 같은 小說이면 漢文으로 쓰이었거나 國文으로 쓰이었거나 同一한 系統文學으로서 發達하여 그 關係의 깊음이 同一한 表記文字의 異種文學에 比할 바 아니라는 점에서 形式的인 表記文學에 拘碍됨이 없이 漢文 國文의 作品을 한 文學的事象으로서 取扱하자는 것이다. 陶南은 「國文學史」緒論에서 다시 이에 대하여 論及하기를 「여기에 國文學의 領域은 제절로 明白한 바와 같이 적어도 古代文學에 있어서는 韓國의 漢文學까지를 國文學에 한 데 包攝하여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 된다」고 하였다.

筆者 역시 大體로 趙博士의 見解를 追從하면서 다음과 같은 意見을 添加해 둔다.

趙博士가 指摘한 바 韓國漢文學으로서 詩 賦 論 策 序 記 跋, 그 밖에 가령 「古文辭類纂」⁽⁷⁾에서 中國 傳統文章으로서 類別된 奏議 書說 贈序 詔令 碑誌 箴銘 贊頌 哀祭文과 같은 것은 韓國文學史와는 別途로 다루고, 漢文일지라도 우리 文學 속에 完全히 融解되었거나 內容 形式 文體面에서 同化된 것만은 韓國文學의 範疇에 넣는 것이 妥當하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II. 장르의 創設과 展開

장르의 理論은 19世紀에 들면서 自然科學의 發達에 隨伴하여 自然科學의 方法이 文學에 應用

(7) 清의 姚鼐가 撰한 「古文辭類纂」에 依據하여 文章類型을 分類한 것을 參照하면 다음 13種이다. 즉 1. 論辨 2. 序跋 3. 奏議 4. 書說 5. 贈序 6. 詔令 7. 傳狀 8. 碑誌 9. 雜記 10. 箴銘 11. 贊頌 12. 辭賦 13. 哀祭

되면서 비롯하였다. 장르는 文學의 類種——H. Wells의 術語를 빌린다면 〈Literary Genitics〉, 즉 文學의 分類된 類種이며, 文學秩序의 原理이며, 文學의 歷史의 種類인 것이다.

文學의 價値는 如何한 경우를 莫論하고 單一한 存在로서는 歷史的 價値가 없고 群과 集團을 이룩했을 때만이 存在價値가 認定된다. 作家와 作品은 歷史的 經過를 통해서 認定되어 社會的 客觀的 意味를 지닌다. 한편 文學은 制度的으로 存在하기 위하여 各종의 集團을 이룬다. 그리하여 共時的으로 다른 作家 作品에 作用하고, 通時的으로 繼承하며 影響을 준다. 그러므로 文學史는 發展史的 系譜로서 장르論을 內包하며 作家論 作品論 文壇研究는 이에 內屬된다.

유럽文學史를 보면 Homer가 일리아드를 쓰고, Aristotle이 叙事詩(Epic)를 設定한 以來 叙事詩는 많은 亞流의 作家와 作品을 輩出했고, 또 多樣한 散文의 樣式으로 展開되었다. 그리고 抒情詩(Lyric)는 Alexander時代に 文學의 장르로 成立되기 시작하여, Renaissance 前後까지는 Melodic Lyric이 流行하였고, 17世紀에는 Verbal-Lyric로 繼承되어 오다가 18世紀末 W. Wordsworth와 S. T. Coleridge의 「Lyrical Ballads」(1798) 以後에 와서는 非音樂的 抒情詩로 發展했던 것이다.

中國文學에 있어서는 楚辭에서 비롯한 辭賦文學은 韻賦와 散賦로 나뉘어져 발전하였고, 六朝以後 隋唐에 걸쳐 流行하던 傳奇는 明清에 이르러 小說文學으로 展開되었다. 韓國文學의 原型은 原始綜合藝術의 性格을 띤 祭儀의 周邊에서 發祥한 詩歌 音樂 舞踊이 混融된 共同行事에서 Shaman에 依해서 演出되었다고 古文獻은 記錄하고 있다. 原始綜合藝術에서 Legomenon⁽⁸⁾의 인要素는 分化 獨立함으로써 信仰을 表象하는 叙事文學으로서의 神話 傳說 등 說話文學으로 發展하고, 한편 個個人的 主觀的 情緒나 思想을 表出하는 抒情詩로 展開되었을 것으로 推想된다. 神歌는 이들 共同行事의 中心이 되었을 것이며, 以後 詩歌文學의 基流를 이루었다. 紀元 1世紀頃의 「龜旨峯 迎神歌」는 700年後인 水路夫人의 「海歌詞」에 까지 連結되어 있는 것을 보더라도 神歌는 民謠 抒情詩歌의 源流로서 다룰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그리하여 新羅 歌樂의 始初라고 하는 儒理王代의 「兜率歌」는 神歌로부터 抒情的 民謠로 發展한 最初의 作品으로 看做되는 것이다. 紀元 6世紀頃에 發生한 鄉歌 亦是 抒情的 民謠의 性格을 지녔다. 民謠는 佛教傳來에 의해서 佛讚化하는 過程에서 定型化하여 抒情的 定型詩로 定立하였다. 鄉歌는 洗鍊된 抒情詩의 代表的 장르로서 高麗俗謠, 李朝의 時調 民謠 雜歌로 이어지는 한국 抒情詩의 主流을 이루었다. 이것은 鄉歌文學의 通時的 展開였다고 想定할 수 있는 것이다. 叙事詩, 叙事文學으로서의 神話, 傳說은 浮動文學으로서 傳承되는 동안에 萎縮하였고, 表記하는 文字가 不足하거나 없었으므로 하여 定着하지를 못하였으며, 叙事詩의 歷史背景의 貧弱으로 發展하지 못했음은 國文學史가 說明하고 있는 바와 같다. 한국의 叙事文學은 叙事詩의 展開를 보지 못하고, 金東旭教授가 指摘한 바와 같이, 巫歌로서의 本鄉謠와 같은 것으로 成立하였고

(8) 희랍劇에서는 그 構成의 要素를 二大分하여 Legomenon(言語表出)과 Deromenon(動作表出)으로 나누어지고 있다.

新羅 統三以後 唐의 傳奇와 漢代의 稗官文學을 模倣한 說話文學으로 脚色되었다.⁽⁹⁾ 統一新羅以後 高麗에 亙하는 4—5世紀 동안 爛熟한 稗官說話文學의 興隆은 敘事文學의 장르的 展開의 歷史였다. 나아가, 李朝에 와서의 此種 說話文學 또한 이를 이은 隨筆의 亞流의 文學으로 轉落하고 말았다.

東西를 莫論하고 敘事文學의 主流은 小說이었다. 國文學史에서 小說의 條件을 갖춘 最初의 小説은 通常 梅月堂 金時習의 「金鰲新話」로 잡고, 한글小說로는 許筠의 「洪吉童傳」을 起點으로 한다. 「金鰲新話」나 「洪吉童傳」은 明清小說의 影響을 받은, 嚴格한 意味에서는 小說(Novel)이라기보다 一種의 Romance이다. 西歐 中世의 Romance가 冒險譚(Adventure)과 戀愛譚(Love story)이 結合된 傳奇小說인 點과 近似하다. Romance의인 樣式으로서의 李朝小說, 이른 바 古代小説은 李朝後期로 내려오면서 英雄 戰爭 軍談小說로, 艷情 家庭小說로 발전하고 있다. 叙上한 바 李朝의 古代小説은 明清小說의 影響으로 發展한 것이지만 創作의 源泉을 說話에서 찾을 수 있으니 古代小説은 說話의 圖式展開로 한 系譜가 把握되어지기도 한다.

燕岩의 實學 漢文小説은 現實批判과 諷刺를 主題로 한 Novel로서 把握할 수 있으나 追從者의 作品을 얻지 못했다. 李朝의 古代小説이 Novel로 발전할 수 있는 絶好의 契機를 喪失한 셈이다.

古代小説이 近代의 小說 Novel로 展開되지 못한 理由로서는 Novel이 產出될 수 있는 社會的 文藝의 風土가 造成되지 못했다는 메도 있겠지만, 당시 作家의 作品을 보는 눈, 즉 作家의 作品觀과 享受者로서의 讀者의 作品觀이 缺如된 儒敎의 勸懲主義의 教誨性이란 限界 때문이었다. 그 結果 古代小説은 近代文學의 展開없는 文學의 樣式으로 내려왔다.

드라마는 文學의 樣式이라기보다는 民俗의 樣式으로 古代의 假面舞에서 濫觴하였고, 高麗와 李朝를 통하여 民俗生活와 密着되어 왔다. 近代의 演劇이 일어나기 前까지 假面舞는 드라마의 主流을 이루어 왔고 한결같이 지리한 反復의 款客用 藝術로서 傳承되어 왔다. 우리는 이 假面의 Grotesque하고 沈滯한 表情에서 이른 바 東洋의 停滯性의 한 側面을 찾아 볼 수 있을 것 같다.

韓國文學에서의 隨筆과 評論은 獨自의 發達을 하지 못했다. 稗官文學流의 <雜記>⁽¹⁰⁾는 漢文章의 한 類型으로 日常의 記事 見聞 隨感을 爲主로 叙述하는 文章形式이다. 그러므로 가령 日常의 記事 見聞을 叙述할진대 稗官說話가 될 것이고, 作品이나 作家에 대한 隨感일진대 詩話와 漫錄이 될 것이다. 李仁老의 「破閑集」, 崔滋의 「補閑集」, 李齊賢의 「櫟翁稗說」, 李奎報의 「白雲小說」, 成俔의 「慵齋叢話」, 徐居正의 「東人詩話」, 洪萬宗의 「旬五志」, 金萬重의 「西浦漫錄」으로 連結되는 一連의 作品들은 中國 雜記文學의 韓國의 展開로서 우리 文學의 質量을 높여주는

(9) 「그네들이 이들 聖地의 祭典에서 외우는 巫歌로서의 本鄉들이는 그네들의 神話였다.」(金東旭, 國文學概說, 民衆書館, 1961, p. 19)

(10) 普通의 記事文을 凡稱하는 것으로 文選에는 이에 該當하는 것이 없으나 明清以後에 發達한 <詩賦論策>이나 小說類에 속하지 않는 文章의 一種이다.

많은 秀作을 남겨주고 있다. 隨筆과 批評이 混淆된 隨筆的批評 批評的隨筆이 韓國의 隨筆과 批評의 性格이기도 하다.

III. 轉換期의 理論

歷史는 轉換期를 통해서 發展과 成長과 飛躍을 이룩한다. 文學史도 歷史인지라 文學史의 轉換期를 통해서 一定한 時期를 劃하며 質的變化를 이룬다. 이 變化는 반드시 進歩와 發展을 意味하는 것은 아니나, 새로운 意慾과 時代의 風土를 釀成하고 새로운 階層의 興隆에 의하여 새로운 장르를 發生시키기도 하고 새 文壇을 形成하기도 한다. 文學史에 있어서의 轉換期의 理論은 文學史를 把握하는 方法이고 時代區分을 可能케 하는 原理이다. 文學史의 轉換期는 文學의 諸事象과 文藝的 諸現象의 變化와 差異를 爲主로 해서 判別하고 그 沈滯와 斷絶과 反動, 그리고 새로운 장르의 生成과 上昇과 發展의 時期를 科學的으로 포착 究明하는 데 있다. 그러나 그 轉換期를 設定하는데 있어 圓周의 前提가 되는 것은 經濟 政治 社會 文化史의 轉換期가 一應 考慮되어야 한다는 點이다. 즉 作品의 社會發展史의 研究가 수반되어야 한다. 하나의 作品이 어떠한 欲求에 의해서 어떠한 精神的 物質의 土臺 위에서 生成되었으며, 그것이 그 時代와 社會의 奈邊에 어떠한 狀態와 關聯을 가지고 存在한 것인가 하는 것을 客觀的으로 把握함으로써 文學이 發生한 歷史的 座標를 設定해 보자는 試圖은 文學史研究의 他山之石이 아니다. 이런 試圖은 同時에 一般歷史 속에서 文學史가 지니는 地位를 明瞭히 하는 의미도 된다.

文學史는 단순한 作家 作品史가 아니기 때문에, 보다 包括的인 視野에서 우선 그 범주를 演繹해 보는 것이 妥當한 것이다. 하나의 作品이 如何한 意識과 狀況으로부터 產出되고, 그것이 如何한 形態로 享有되었는가를 考究하는 것은 文學의 獨自의 發展이 沮害되었던 古典文學史의 研究에 있어 더욱 重要하다.

神이 宇宙를 創造했다면 英雄은 歷史를 創造하고, 文藝家는 作品을 創造한다. 그리고 文藝家는 文學의 장르를, 思想家 哲學家는 精神을, 宗教家는 信仰을 創造함으로써 轉換期를 마련한다. 모든 史家 思想家 宗教家 藝術家는 이러한 轉換期를 說明하기 위하여 自身을 희생하며 이를 實現한다.

한편, 低文化圈의 文學史에 있어서는 高度文學의 移植과 模倣과 影響에 의해서 他律的으로 轉換期의 地盤을 마련하기도 한다. 한국文學史의 轉換期가 叙上한 모먼트에 依據한다고 하는 것은 마치 中國王朝의 變革에 隨伴해서 韓國의 歷史가 變遷하고 있다는 歷史的 事實과 軌를 같이 하는 것이다. 그러면 文學史의 轉換期가 內包하고 있는 具體的인 內容과 意味는 무엇인가? 筆者는 任意대로 다음과 같이 定義해 본다.

文學史의 轉換期는 그 背景되는 思想과 精神의 變革期요, 文學장르와 制度의 轉換이 劃期的

으로 이루어지는 時期이며, 過渡期과 新興하는 草創期로 表示된다.

새로운 文學規範으로 넘어가는 過程으로서의 過渡期은 장르의 混線과 沈滯 속에서도 轉換期을 準備하고, 新興하는 草創期은 創設者의 意慾에 의해서 充滿된다. 外來的 要素는 혹은 同化하고 혹은 排除된다. 그리고 偉大한 作家의 登場이 期待된다. 우리는 文學史의 轉換期을 통해서 創造를 基本으로 하는 人間精神의 多彩로운 活動과 豐饒한 情感이 發揮된 作品의 成果를 얻게 된다. 轉換期의 文學的 地盤 위에서 作家의 創作의 歷史意識은 文學史의 흐름을 하나의 尺度로서 分明히 區分하기를 要求한다. 여기에 文學史에 있어 時代區分의 規範體系가 成立하는 것이다. 아울러 文學史는 그 흐름 속에 어떤 統一되고 特質의 意味를 주기 위하여 period를 적는 것이다. 이 時代區分에 의하여 具體的 作品의 性質과 作家의 性格을 올바르게 把握할 수 있는 것이다.

筆者는 上述한 바, 轉換期의 理論에 의해서 時代區分을 하고 그 時代區分에 依해서 모든 作品을 歷史的 座標에서 바르게 把握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면, 轉換期을 區劃하는 劃期的인 모멘트를 어떻게 設定하느냐 하는 문제가 惹起되는데, 이 문제는 確然한 답을 주기 어려운 것이지만 다음과 같은 假說을 構想해 보기로 한다.

1. 外來的 文藝장르의 積極借用期(高度文化圈의 文藝의 支配・影響期)
2. 特定時代樣式과 그 代表的 장르의 斷絶 消滅과 아울러 새로운 樣式, 새로운 장르의 發生期
3. 政治 經濟 社會 文化 등의 變革이 決定的으로 또는 支配的으로 文藝를 改革시킨 時期
4. 固有한 思想, 民族精神이 高揚되어 文化 全般에 批判的 飛躍的 發展을 促求한 時期
5. 獨自의 文學장르를 創造하고 擔當할 수 있는 新興階層의 擡頭期
6. 作家의 作品觀이나 讀者의 作品觀이 뚜렷한 變化와 轉換을 한 時期
7. 偉大한 作家의 登場期

上記한 바와 같은 條件들은 文學史의 轉換의 具體的인 要因이라고 생각한다.

IV. 時代區分의 構想

모든 歷史는 始終에 의해서 區劃되는 期間의 累加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도 볼 수 있다. 우리는 歷史的 事象에 대한 그 地位를 史的으로 定立키 위하여, 또는 歷史를 正確하고 客觀的으로 認識하고 把握하기 위해서 時代를 區分하는 것이다. 時代區分은 결코 歷史理解의 便宜的 方法만은 아니다. 歷史를 敘述함에 있어 時代區分과 그 名稱 如何는 全歷史期間을 總體的으로 理解 把握한 結果라야 한다. 그런 뜻에서 時代區分은 歷史敘述의 大前提이며 그 歸結點이다. 皮相的으로 보면 單純한 것 같으면서도 이는 根本的으로 우리에게 歷史認識의 指標가 된다. 例컨대 時代區分을 政治史의 方法에 準據한다면 韓國史의 경우, 자연히 王朝中心의 歷史가 될 것이

고, 經濟史의 要因에 의해서 區分한다면 生産力과 生産關係에 의거해서 區別될 것이다. 그 名稱에 있어서도 上代 中代 下代나 하고 呼稱하는 경우와 上古 中古 近古 近世 現代 등으로 呼稱하는 경우, 古代 中世 近代라 稱하는 경우에 따라서 對象을 把握하는 方法도 달라질 것이며 觀念 같은 것도 달라질 것이다. 가령 同一時代를 近古時代라 指稱하는 것과 中世時代라 指稱하는 差異에 따라서 그 概念 自體도 相違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선 가장 合當한 名稱에 의한 時代區分은 歷史研究의 要緊한 先行作業이 아닐 수 없다.

已往에 提示된 史家들의 時代區分의 方法을 想考해 본다면,

첫째, A. Vigo의 發展說이다. 그의 形而上學的 自然主義의 5段階 發展說에 의하면, 1. 發生(未熟) 2. 進歩(強大) 3. 開化(溫和) 4. 衰亡(柔弱) 5. 終末(放恣)과 같은 段階와 過程을 通하여 歷史가 發展하며, 다시 이를 3時代로 分類하여 創造의 空想의 <神話時代>, 意志의 思想의 <英雄貴族時代>, 理論의 思想의 <人間時代>로 三分하고 있다.

自然科學의 方法을 發展시킨 것은 Darwin, Mill, Conte, Taine, Spencer, Brunntière로 繼承되며, 그 中 Conte는 自然科學의 方法과 社會科學의 方法을 結合해서 實證論을 建設했다. 靜力學으로서의 社會物理學과 歷史의 社會力學을 綜合한 社會學이 그의 實證論의 基礎이다. 內容에 따르면 人間은 <神學的狀態>로부터 <形而上學的 狀態>로, 그리고 <科學的 實證的 狀態>에 이룬다고 하는 <三個狀態의 法則>을 主張하고 있다. 同類의 것으로 文化史의인 特色을 지닌 Spengler의 學說은 民族 및 文化의 生命이 生物과 같이 規則的으로 交替한다는 前提推理 밑에 本質的인 것으로, 1. 文化는 動植物과 같이 生成 死滅하는 有機體이다. 2. 諸般文化의 相互影響과 接觸은 純粹히 外的이며 精神的 意味의 文化의 融合은 없다. 3. 각 文化는 <小兒時代> <青年時代> <老年時代>를 經過하고 死滅한다.

다음, 辯證法的 歷史哲學의 始祖는 Hegel이다. 그는 國民精神을 前提로 하면서, 「文化는 人間社會의 主體로 相互 對立하며 多様な 樣式을 지닌다. 모든 文化와 民族圈은 여러 가지 樣式으로써 發展한다. 그리하여 各種 段階의 文化를 形成한다. 歷史와 文化를 發展시키는 原動力은 客觀的 精神이며, 精神은 絕對理性이다」(Hegel의 「歷史哲學」)라고 披瀝하고 있다.

Bachofen (1815—87)은 宗教史의 方法으로 決定論을 主張하고 있다. 모든 歷史的 發展은 그에 相應하는 宗教的 狀態와 聯結되어 있으며, 市民的 關係의 模範은 宗教的으로 發達한다고 主唱하고 있다.

1. 地下神의(地神) 亂婚: 娼婦의 母權時代
2. 月神의(月의 宗教) 靈魂: 母權
3. 太陽의(太陽宗教) 精神: 父權

以上과 같이 圖示하고 있다.

政治 經濟 社會史의 方法으로 代表되는 것은 F. List의 <未開狀態> <農業狀態> <農工業

狀態> <農工商業狀態>라는 四段階 發展說과 B. Hildebrand의 <自然經濟> <貨幣經濟> <信用經濟>라는 三分法 등과 唯物史觀에 立脚한 Marx類의 學說로서 人間社會의 歷史現象은 確固한 法則에 의해서 規定되는 것으로, 下部構造인 經濟 혹은 物質의 土臺를 發展의 要因으로 設定하면서, 1. 테제(命題): 原始共產主義 2. 안티·테제(反對命題): 私有財産 封建制度 資本主義 3. 신·테제(綜合命題): 將來 共產主義와 같이 機械的으로 變遷한다는 發展說이다. 存在가 意識을 決定한다는 것이 그의 歷史哲學이다.

以上은 大體로 歷史는 特定の 因素에 의해서 發展 進歩한다는 發展主義學說을 列擧해 본 것이다. 그 理由는 文學 自體도 廣義로 본다면 歷史的 社會的 文化的 事象이며 文學史 역시 一般 歷史의 分科學일 수 있기 때문이며, 또 一般歷史 研究의 方法을 文學史研究에 많이 活用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文學史를 時代區分하기 위하여 于先 一般歷史와 文學史의 時代區分 方法, 範圍, 內容의 同異點을 比較 研究하는 作業을 先行시켜야 할 것이다. 一般歷史 속에 混合되어 있는 文藝的인 것과 非文藝的인 것을 갈라내고 그 差異點을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一般歷史와 同一한 始終 또는 展開를 갖지 않는 文學史의 特質을 考慮하여 文學 自體의 分劃에 依據한 文學史研究는 무엇보다 重要한 課題가 아닐 수 없다. 1922年 安自山의 「朝鮮文學史」를 嚆矢로 解放後 趙潤濟博士의 「國文學史」를 비롯한 舉皆의 國文學史가 試圖한 時代區分方法은 批判없이 一般歷史의 時代區分에 準했거나, 體系를 달리하는 甲乙의 方法을 混用했거나, 아니면, 王朝史中心 혹은 文藝現象과 漠然한 精神史 中心의 追求를 標榜한 것이었다.

以下 安自山의 「朝鮮文學史」를 비롯하여 解放後 지금까지 刊行된 韓國文學史中 特記할 만한 것을 들어 時代區分의 基準과 方法을 類別해 보면 다음과 같다.

- A. 政治 王朝史의 方法: 金思樺 「國文學史」
- B. 經濟 社會史의 方法: 李明善 「朝鮮文學史」
- C. 文化史의 方法: 趙芝薰 「韓國文化史序說」
- D. 國學意識을 爲主로 하는 精神史의 方法: 趙潤濟 「國文學史」
- E. 宗教 思想史의 方法: 朴晟義 「古典文學背景論」
- F. 文學장르 中心의 分類의 方法: 「韓國文化史大系」中 文學史
- G. 一般史에 準據한 方法: 安自山 「朝鮮文學史」

以上의 分類는 文學史家 諸氏의 方法中 主流的인 面을 抽象하여 便宜的으로 類別해 본 것이므로 差誤된 點이 있을 줄 안다. 또 大部分의 것이 統一된 單一基準에 의한 것이 아니고 精神史的인 方法과 一般史的인 方法을 兼用하거나, 經濟史의 方法과 一般史的 方法을 混用하거나, 思想史의 方法과 一般史的 方法을 併用하여 統一性を 缺했거나 하여 舛錯된 點이 많다.

最初의 國文學史로 알려진 安自山의 「朝鮮文學史」는 그의 「自覺論」과 더불어 姊妹篇을 이루어

一般史 속에 埋沒되고 오직 歷代文選의 形式으로 다루어졌던 韓國文學史研究에 있어 하나의 새로운 試圖였다고 생각된다. ⁽¹¹⁾

安自山의 240面に 이르는 「朝鮮文學史」는 一般史의 時代區分方法을 따랐으며, 當時의 事情이 있든지 日本文學史의 時代區分方法을 그대로 模倣하고 있다. 明治 32年 出刊되어 日本文學史의 劃期的 業績이라고 하는 芳賀 矢一の 「日本文學史十講」을 그 例로 들 수 있는 바, 同書는 上古 中古 近古 近世 現代로 五分함으로써 日本文學史의 時代區分을 確立하였는데, 上古는 一般史의 古代 곧 奈良시대이고, 中古는 平安朝時代, 近古는 鎌倉 吉野 室町 安土桃山時代이며, 近世는 江戸時代와 같이 區分하면서, 所謂 古事記 祝詞類는 上古文, 源氏物語 枕草紙는 中古文, 平家物語 諸曲은 近古文이라 呼稱하여 爾後 日本文學史의 固定名稱이 된 것이다. 安自山의 「朝鮮文學史」는 이러한 方法을 그대로 應用하여 時代區分의 五段階說을 세우고 그 規範 속에 우리 文學四千年의 歷史를 分割 排列한 듯하다.

氏의 「朝鮮文學史」時代區分을 圖示하면 아래와 같다.

1. 上古時代: 檀君부터 三韓까지 약 2,200年
2. 中古時代: 三國時代
3. 近古時代: 統一新羅以後 高麗末까지 약 500年
4. 近世時代: 李朝時代 약 500年
5. 現 代: 甲午以後

安自山의 叙上한 時代區分은 日本文學史의 方法을 踏襲하고 있거니와 時代概念의 構成에 있어서도 疎漏하다. 즉 上古니 中古니 하는 史的 概念이 分明치 않고, 더욱 妥當성이 없으며, 文學史의 獨自性이 度外視되고 있다. 또 古代는 明瞭치 못함에 너무 長廣하고, 中世文學의 設定이 없다. 文學史의 獨自性을 考慮치 못한 때문이며, 또한 近代에 대한 歷史意識이 混同되고 缺如되어 있다. 그러나, 安自山의 「朝鮮文學史」는 以上の 短點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文學史를 一般史에서 分離하여 獨自의 文學史를 意圖하고 構想하여 新境地를 開拓한 點에 있어 先驅者의 役割을 評價치 않을 수 없다. 安自山은 「朝鮮文學史」緒論에서 廣義의 文學을 前提하면서 文學을 定義하되, 「文學이라는 것은 美的感情에 基한 言語 又は 文字에 依하여 사람의 感情을 表現한 것이라 그런즉 詩歌 小說과 같이 想像을 主한 것은 勿論이오 多少 考察을 加한 史傳 日記 隨筆 又 教誨 啓發의 文類라도 實로 美的 感情에 基한 著作이 된 以上은 다 이를 文學中에 攝入되는 것이다」와 같이 그의 文學觀은 近代의 純文學의 解釋에 接近하고 있으며, 나아가서 <文學史>를 規定하기를,

「文學史라 하는 것은 文學의 起源 變遷 發達을 秩序의 으로 記載한 것이라 卽 --國民의 心的 現像의 變遷 發達을 推究하는 것이라 大蓋 一國民의 心的 現像을 表한 것은 홀로 文學 뿐 아

(11) 安自山의 著作으로 「朝鮮文學史」는 1922年 初版되었고, 「改造論」은 同年 3 版, 「自覺論」은 4 版 印刷되었다.

나라 政治 美術 宗教 等 같은 것도 不少하다 然이나 文學은 가장 敏活 靈妙하게 心的現像의 全部를 表明함으로 其國民의 眞正한 發達 變遷을 알고자 하면 此보다 더 大한 것이 없나니 故로 此點으로 말하면 文學史는 一般歷史 더욱 人文史의 重要되는 一部로 볼 뿐 아니라 翻하여 諸種의 歷史를 다 解明한 것이라 하기 可하나라」

와 같이 文學史研究의 發展史의 體系의 意義와 心像을 表象하는 文學의 歷史는 政治 美術 宗教와 比較해서 國民의 發達과 變遷의 過程을 보다 眞正하게 表現한 人文史 즉 文化史의 一部라는 점을 所信있게 指摘하고 있다. 文學을 그 發展의 過程에서 體系의으로 考察하고 文學史가 文化史의 一部이면서 政治 美術 宗教史보다 優位의 眞正한 歷史로 다루고 있음은 氏의 言及한 바와 같이, 「自來로 朝鮮文學史를 論한 것이 全無」⁽¹²⁾한 狀態였던 1920年代의 處女地를 踏안할 때 注目할만 하다.

安自山의 「朝鮮文學史」以後 遼遼했던 文學史研究는 解放後 1949年 陶南 趙潤濟博士의 巨著 「國文學史」를 始初로 한다. 陶南의 「國文學史」는 뚜렷한 史觀에 立脚하여 文學과 非文學을 간추려 區分하고, 純粹國文學과 漢文學間의 認識을 明瞭히 하면서 國學精神 내지는 民族意識의 發展에 力點을 두어 그 消長・對立의 契機를 精神史의으로 追求함과 아울러 一般史의 時代區分法을 이에 合致시켰다. 趙博士의 時代區分法을 略示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胎動時代(新羅統三以前)=上古時代
2. 形成時代(統三以後 新羅一代)=上古時代
3. 萎縮時代(高麗一代)=中古時代
4. 蘇生時代(太祖→成宗)=近古時代
5. 育成時代(燕山→壬亂)=近古時代
6. 發展時代(壬亂→景宗)=近世時代
7. 反省時代(英祖→甲午)=近世時代
8. 運動時代(甲午→3.1運動)=最近世時代
9. 復歸時代(3.1以後)=現代

趙博士는 國文學史를 精神의으로 九大別하고 다시 이를 上古 中古 近古 近世 最近世 現代로 歸屬시키고 있다.

그러나 趙博士의 國文學史는 몇가지 點에서 問題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國學精神의 高揚과 沈滯 혹은 浮沈에 따른 時代區分을 一般史의 方法으로 再區劃하고 있는데, 이 六分法은 역시 日本文學史 또는 安自山의 五分法을 應用한 듯하며, 다만 現代를 兩分하여 最近世와 現代로 分割했을 程度의 差異點이 있다. 古代를 上古 中古 近古의 名稱으로 分類하는 方法인 바 이는 都是 日本 學者들의 固定된 術語이며, 日本史나 日本文學史의 時代區

(12) 安自山, 朝鮮文學史 緒論, p. 2

분에 相應한 呼稱인 것이다. 그런 때문에 前記 國文學史 時代區分에 中世라는 時代設定이 없다. 中世는 一般史에 있어서나 文學史에 있어서나 重要한 比重을 차지하고 있음을 勘案할 때 中古라는 曖昧한 區分은 歷史的 客觀的 妥當性이 없다. 世界史的 見地에서 보면 中世는 흔히 暗黑 時代라고 規定하고 있지만 그 實은 가장 多樣性있는 時代로서 文學史的 側面에서 보더라도 多樣的 장르의 展開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 文學史에 있어서도 中世文學이라고 볼 수 있는 統一新羅以後 麗朝의 文學은 가장 創造的이며 潑刺하고 多岐多樣的 開花와 發展을 한 時代로 看做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鄉歌文學의 爛熟, 高麗 長歌·俗謠의 創作, 稗官·說話文學의 進展, 謠曲의 發達, 唐宋詩와 詩學의 流行과 그에 수반하는 詩話의 發達 등으로 빛나는 文學史的 時代를 誇示하고 있다. 世界文學에 있어서의 中世文學의 比重을 考慮해서 韓國文學史의 研究에 있어서도 一應 中世文學이란 時代設定과 아울러 그 史的 限界, 範圍, 內容을 力點的으로 考察할 必要性이 있다.

이러한 關心은 한편 古代文學과 近代文學의 區劃을 明瞭히 하는데 있어서도 要緊한 것이다. 유럽의 史學에 있어 中世가 設定된 것은 17世紀이고 古代 中世 近代라는 三分法의 中間段階로 呼稱되며 普通 계르만의 移動으로부터 文藝復興까지를 가리킨다. 經濟 政治 社會 文化 諸般의 歷史를 綜合的으로 보아 가장 合理的으로 通用될 수 있는 時代設定으로 一般化되어 있다.

中世는 歷史法則의 世界史的 共通段階로 널리 다루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一般史나 文學史의 時代區分에 있어 中古니 近古니 하는 區分은 매우 모호한 概念에서 오는 呼稱인 것이기도 하다. 前述한 바 日本史, 日本文學史의 경우는 공교롭게 中世는 平安朝時代로, 近古는 鎌倉 室町時代에 該當시킬 수 있다고 하나, 如斯한 區分은 그들만의 獨特한 區分法으로 통하고 있는 것이다. 中古 近古는 古代도 아니고 中世도 아닌 不分明한 概念이며 中古와 近古의 限界 역시 確實치 못하다. 日本文學史에서는 普通 近古를 中世에 該當시키고 있다. 如何間 古代를 上古 中古 近古로 分割하는 日本史의 時代區分은 客觀的 世界史的 妥當性이 없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이에 筆者는 中世文學을 文學史的 嚴密性으로 미루어 韓國文學史의 時代로 設定할 것을 提議하면서 우리 文學史를 大分하여 1. 古代文學 2. 中世文學 3. 近代文學 등으로 우선 古典文學史를 構成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 본다. 이러한 方法은 文學史를 文化史 또는 文藝史의 一部로 보는 見地에서는 한층 妥當하리라 생각하는 것이다.

以上 論據에서 본다면, 趙博士의 「國文學史」에서 高麗文學의 把握은 精神史的 圖式과 아울러 正當치 않은 것 같다. 陶南의 「國文學史」에 이어서 1954年 初刊된 淸溪學人 金思燁博士의 「國文學史」는 王朝史中心의 文學史로 그의 自序에서 陳述한 바와 같이 「時代的 分段은 國家形成의 變遷에 쫓아 編을 가르고, 各編은 文學史的 趨移에 따라 節項을 세웠다」는 것이다. 淸溪學人의 國文學史 執筆의 目的은 民族精神의 連綿한 要因을 밝혀 이를 把握하고 새로운 國民文學의 健全한 發展을 위한다고 前提하고, 重點은 國文學史에 나타난 思想的 主潮流와 形式面에 나타난

여러 特異性을 闡明하고자 한다고 論及했다. 該「國文學史」의 時代區分은 다음과 같다.

1. 上古文學：部族國家의 形成

綜合體藝術

2. 三國時代文學：漢文學，雜劇과 說話文學

新羅의 鄉歌文學

高句麗의 歌謠

百濟의 歌謠

3. 高麗文學：漢文學의 趣移，說話，雜戲，高麗歌謠，景幾體歌，漢譯歌

4. 李朝文學：① 한글文學，樂章，小說의 萌芽，歌辭·短歌의 發生

② 勃興期文學(歌辭의 發達，內房歌辭，短歌，妓流文學)

③ 戰亂期文學(小說의 趣移，學風의 變革，短歌의 隆盛，中國小說影響，隨筆，日記，家庭小說，民譚小說)

④ 英正時代의 文學(時調，實學四家，委巷文學，漢文小說，正音小說)

⑤ 國末의 文學(漢文壇，唱劇，俗謠와 民謠)

6. 現代文學：新小說의 擡頭，唱歌，新詩，新劇，文壇春秋時代，不安思潮와 主知主義，暗黑時代의 文學

以上이 金思樺博士의 時代區分의 方法이며 그 簡略한 內容이다.

叙上한 바와 같이 金博士의 時代區分은 王朝史에 合致한 方法으로 文學의 王朝別 時代의 樣式을 構想하여 思想思潮의 背景，作品論，作家論을 爲主로 說明하고 있다. 作品이나 作家에 대한 眞正한 評價인 批評이 文學史研究의 前提라고 한다면，金博士의 「國文學史」는 文獻學的 在來의 方法을 벗어난 批評論的인 國文學史이고 또 時代文學의 樣式을 形成한 思想的 思潮의 精神의 背景의 研究를 통해서 우리 文學의 歷史의 地位와 文學의 意味를 賦與하고 있는 點에서도 金博士의 「國文學史」가 우리 文學史學史에서 얻을 수 있는 높은 評價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王朝中心의 文學史는 上述한 바와 같이 王朝別 文學性格의 一種 樣式化를 위한 方法으로 是便宜한 것인지 모르겠지만，王朝史와 文學史는 꼭 合一하지 않는 것이기에 韓國文學史의 時代區分方法으로서 是適合하지 못한 同時에 文學의 文藝學的 把握의 方法이 못된다. 同時에 장르의 發展，傳統의 繼承이라는 歷史意識이 不足한 것이 該文學史의 瑕疵이다. 文學史는 發展의 系列中에 文學事象의 相互關係와 作用을 바로 認識하고 그 基本的 要因과 法則과 方向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文學史는 過去를 現實에서，現實을 未來에서 創造해야 하는 것이다.

1963年 가람 李秉岐先生의 「國文學全史」는 많은 새 資料를 提示하면서 <一部 古典文學史>，<二部 新文學史> (白鐵)로 나누고，附錄으로 <韓國漢文學史>를 追加한 標題 그대로 全史이다. 本「國文學全史」는 陶南「國文學史」以後 刊行된 國文學史 研究 業績中 가장 뚜렷한 史觀에 立

脚했으며, 世界文學史의 關聯性을 考慮하고, 國民文學의 展開 가운데서 文學 諸事象의 相互關係, 因果關係를 밝히고, 文學史의 諸條件을 考察하면서, 近朝 한글創制後의 한글文學에 力點을 두고 開陳한 文學史이다.

「第一部는 먼저 近朝文學史에 中點을 두어 그를 前後 二篇으로 劃期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近朝에 와서 우리 나라 文學의 量質에 있어서 가장 높은 水準을 提示한 點에서도 그러하거나와 同時에 여기서 그 國文學의 概念을 強調하여 近朝에 와서 한글이 創定된 紀元을 文學史의 中心으로 다루자는 뜻에서이다.」⁽¹³⁾

라 하였고, 高麗以前의 文學에 關해서는 同 序論에서,

「麗朝以前編이라 設定해서 國文學의 根源準備過程으로 다시 細分하여 古代文學 過程을 追求 叙述하기로 하였다.」⁽¹⁴⁾

고 言及했으며,

「新文學史는 開化期以後 歐美系統의 文學을 받아서 新興 發展된 文學史」⁽¹⁵⁾

라고 規定하였다.

따라서 「國文學全史」의 比重은 한글文學에 重點을 두었으며 高麗以前 文學은 準備過程으로 보고 있는 點이다.

第一編 麗朝以前의 文學範圍는 古代文學, 三國時代의 文學, 統一新羅의 文學, 高麗時代의 文學 등이 모두 歸屬되고, 各 時代 文學의 特質과 作家 作品이 批評的 識見으로 整理 體系化되어 있다.

第二編 近朝文學의 內容은 詩歌文學의 爛熟期, 散文精神의 萌芽期로 二分하고 時調 歌辭 小說 翻譯 文學 雜歌 劇歌文學이 強調되었다.

가람의 執筆部門인 一部 麗朝以前 文學은 大體로 王朝時代中心으로 區分해서 다루었으며, 二編 近朝文學은 時代的 樣式 또는 장르 및 作品 作家中心으로 編成되어 있다. 作品 作家 背景의 作品 連繫性을 통한 史述方法이라 생각한다. 즉 作品의 解釋 理解 批判을 통해서 作家의 思想 意圖를 再認識하고 또 그 作家가 生存하던 時代의 歷史的 特徵을 把握하고자 하는 것이 「國文學全史」의 方法인 것이다.⁽¹⁶⁾ 그러나 「國文學全史」는 한글文學에 力點을 둔 나머지 한글創制以前의 文學史 過程이 疎忽히 取扱되고 있으며, 史的把握이 度外視되었고, 所謂 近朝文學의 경우에 있어서도 歷史意識이 缺如되어 있다. 이것은, 한글文學 重點의 國文學史로서 하나의 바람직한 試圖일 수는 있으나, 우리 文學 속에 融合 同化되고 傳統화된 漢字記述文學 全體를 國文學史에서 除外한다는 것은 再考할 문제인 것이며, 또 文學史는, 同書 序論에서도 論及한 바와 같이

(13) 李秉岐 白鐵共著, 國文學全史, 新丘文化社, 1963, 序論

(14) Ibid.

(15) Ibid.

(16) Ibid.

그 内部的 條件과 外部的 條件의 統一과 歷史的 位置에서 認識 把握되어야 한다는 點에서도 그렇다. 文學史의 時代區分 方法으로 가장 包括的이며 客觀妥當性을 지니고 世界文學史의 視野와 共通性을 띠는 最善의 方向은 역시 古代 中世 近代의 三分法을 韓國文學의 特殊한 樣相과 性格에 援用 適應시킴을 指向하는 方法이다. 그러므로, 韓國文學史의 時代區分에 있어서는 우선 韓國의 古代, 韓國의 中世, 韓國의 近代의 概念構成과 時代設定, 그리고 다음으로 文學時期的 時代設定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음 趙芝薰氏의 「韓國文化史序說」(1964)은 韓國文化史를 文學中心으로 論述한 著作이다.

1. 韓國文學發生時代(口誦文學時代): 巫歌, 民謠, 神話, 傳說
2. 開花時代(統一新羅時代): 鄉歌
3. 苦悶時代(高麗時代): 宋文化, 隨筆, 稗官文學
4. 發達時代(李朝時代)
5. 轉換時代(壬亂以後 實學時代)

以上과 같이 趙芝薰氏는 「韓國文化史序說」에서 文學事象을 文化現象論으로 다루고 있다. 例를 들자면 高麗時代文學을 苦悶期的 文學이라고 하고, 李朝前期의 文學을 發達時代의 文學이라고 함과 같다.

「韓國文化史序說」은 우리 文學의 史的展開를 二分하여 古典文學史와 現代文學史로 區劃하였는데 古典文學은 口傳文學 漢譯文學에서 起點을 잡아 古代까지를 一期로, 二期는 漢字記錄文學時代인 古代로부터 吏讀 鄉歌文學時代인 中世까지로 잡고, 三期는 中世以後의 大衆文學時代와 한글文學時代를 包含시켰다. 以上 三分法은 大體로 韓國文學史의 文化史的 把握으로 無難한 方法이라 思料된다. 文學史發展의 過程을 發生 開花 復興과 같은 自然法과 文化現象論의인 解釋으로 理解하고 있는 趙芝薰氏의 方法論은 廣疎한 그대로 要諦를 잡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氏는 美術文化의 史的考察에서도 大綱 위와 같은 區分方法을 適用하여, 原始時代로부터 紀元 1世紀까지를 固有文化時代, 紀元 1世紀부터 13世紀까지를 民族文化發展時代, 以後 現在까지를 固有文化 衰微時代로 三分하였다.⁽¹⁷⁾

그리고, 漢文學의 取扱問題에 대해서는 肯定的 態度를 取하여 前記論著에서, 「韓國文學史에 있어 漢文學의 取扱問題는 실로 難問題가 되어 있다. 우리 말로 쓰여지지 않았으므로 韓國文學의 範圍에 넣을 수 없는 사정이 있는가 하면 너무나 많은 그 韓國의 性格과 情緒, 韓國의 社會와 歷史現實에서 우러난, 또 이들 韓國人 손에 이루어진 漢文學을 제외한다는 것은 우리 民族이 이루어놓은 精神의 寶庫를 자진하여 拋棄하는 격이 될 것이다」고 論及함으로써 漢文學을 民族

(17) 趙芝薰의 <韓國文學의 展開> 가운데서 紀元 1世紀까지를 固有文化의 文學發生時代라고 規定하고 이를 口誦文學時代라 이름했다. 口誦文學은 巫歌 民謠 神話 傳說의 형태로 古代人의 思想 感情 情緒 氣分 趣味가 口碑를 통해서 지금까지 傳承되는 것이다.

文學의 遺産으로 다루고 있다. 다만 漢字表記 韓國漢文學, 즉 民族文學으로 同化되어 傳統化된 漢文學과 中國文章類型的 再版된 漢文學은 그 取舍와 選擇의 문제가 남지 않을 수 없다.

朴晷義教授의 「古典文學背景論」의 時代區分은 思想思潮史 中心이 되어 있다.

巫覡의 原始信仰時代를 上古로, 儒佛道思想浸潤時代를 中古로, 佛教思想時代를 近古로, 儒敎思想時代를 近世로, 19世紀 中半期以後의 世界思潮時代를 最近世로 割當하고 있다. 上古 中古 近古 近世 最近世의 五分法은 安自山 以後의 답습된 在來式 區分法임은 물론이다.

끝으로, 民族文化研究所 刊行 「韓國文化史大系」중 文學史는 口碑文學史, 詩歌文學史, 小說發達史로 分類하여 批評方法에 立脚하고 각각 그 代表되는 文學장르別로 叙述한 것이 特色이라 하겠으나 장르의 上層構造로서의 樣式問題를 考慮치 않았고 共同執筆이기 때문에 一貫性이 缺如되어 있다.

以上으로 간단히 1922年 安自山의 「朝鮮文學史」以後 重要한 文學史의 時代區分方法을 一瞥하면서 그 功過와 長短을 찾아 보았다. 國文學史의 研究史가 아직 短淺한 現時點에서 想考해 볼 때 모두가 意慾의인 試圖였음을 否認할 수 없는 일이다.

文學史는 時間的 歷史的 繼起를 통해서 일어나는 文學事象과 文學事件의 發展系列을 잡아서 相互의 關係와 作用과 影響을 認識하고, 人間(民族)의 創造・創作力을 基本으로 綜合 考察하는 文藝科學이다. 文學史는 人間의 知的 精神的 創造・創作活動의 集成이기 때문에 一般歷史보다도 深奧하고 複雜한 原理가 潛在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文學史의 時代區分은 一般史보다 한 층 delicate하기도 한 것이다. 文學史는 一般史의 分科이면서도 그 實은 一般史를 內包하고 있는 것이다. 經濟 政治 社會 文化 藝術史 등이 文學史와 同一하지 않으면서도 大體로 큰 差異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文學史家는 먼저 一般史의 時代區分法을 參考해야 한다. 그러나 文學史는 어디까지나 文學史 時期에 의해서 區分되어야 하는 것이다.⁽¹⁸⁾ 文學의 事件 혹은 文學에 決定的 支配的 影響을 주는 歷史的 事件을 基礎로해서 定해져야 한다. 筆者는 前述 轉換期의 理論에서 略論한 바 있거니와, 轉換期는 文學의 時期를 決定짓는 基準이 된다고 생각한다. 轉換期란 變動이 없는 平靜한 時期가 아니고, 前代의 것이 變質되고 새로운 것이 萌芽 發動하여 激動속에서 建設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過渡期와 다르다. 過渡期는 變革과 새로운 創造가 없는 어떤 時期로부터 다른 時期로 移行하는 無秩序한 期間을 뜻한다. 어떤 意味에서는 轉換期를 準備하는 期間이기도 하다.

文學의 劃期 즉 文學轉換期를 史的으로 設定 區劃키 위하여 筆者는 다시 前章에 假說 提示한 바 7個項의 要因들을 想起하고 우리 文學史의 發展過程에 適用함으로써 先輩 여러분의 叱正을 바라는 바이다.

(18) 文學史 時期란 政治 經濟 社會 文化史의 時代區分으로부터 獨立된 文學 獨自의 發展過程을 爲主로 文學史 時代區分을 試圖하기 위한 名稱임.

韓國文學史를 時代區分한다면 大略 다음과 같은 六期로 分期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1. 原始綜合藝術期(先史 原史時代로부터 漢四郡 設置以前까지)
2. 古代文學期(漢四郡以後로부터 三韓・三國・新羅統三까지)
3. 中世文學期(新羅 統三以後로부터 高麗末까지)
4. 近世文學期(李朝建國以後로부터 李朝末까지)

前期(李朝建國으로부터 李朝 宣祖 壬亂까지)

中期(壬亂부터 丙亂까지)

後期(仁祖부터 甲午更張까지)

5. 開花文學期 <近代文學>(甲午更張부터 1917 春園의 「無情」까지)

6. 現代文學期(「無情」以後 지금까지)

韓國文學史를 以上과 같이 六分期하는 論據는 첫째, 지금까지 우리 文學史 時代區分에 있어 原始文學과 古代文學이 文學性格에 있어서나 그 質量, 그 源泉에 있어 다름에도不拘하고 混合하고 있다는 在來의 見解를 是正하고 原始文學 發生의 歷史的 背景的條件과 古代文學의 그 條件을 對比 判別하며 世界文學史의 類推解釋을 통하여 究明하자는 意圖에 있다. 그리하여 外來 漢文學 내지는 漢文化의 侵透期인 漢四郡 設置以前까지를 原始綜合藝術期로 잡은 것이다.

둘째, 古代文學期의 起點을 漢四郡以後로 잡은 것은 漢字文學과 漢文化가 積極的으로 輸入되어 온 時期를 이 때로 보고 原始時代의 祭政一致가 崩壞하고 部族集團에 의한 國家形成과 支配階級的 擡頭에 따른 財產私有의 觀念, 租稅의 貢納과 法律의 制定을 招來했고, 鐵器 青銅 土器 木器 등의 多樣的 使用으로 手工業의 發達 등 古代社會의 性格形成을 들 수 있다. 原始綜合藝術의 神聖味는 차차 줄어들고 遊戲의 發想에 의하여 藝術의 分化를 招來하게 되었다. 이로부터 新羅의 三國統一까지는 一連의 進展은 있었으며 큰 變革이 없다고 보아 新羅統三까지를 古代文學期로 다루었다.

세째, 中世文學期는 專制的 封建의 貴族國家의 成立을 統三新羅로 보고 儒佛道習俗과 佛教의 宗教的 思想的 情緒의 支配와 壓倒의 時期이며 또 中國으로부터 今體詩學 詩風이 汎濫하여 크게 影響한 變革期로 보아 이를 中世文學의 出發期로 다루었고, 高麗末까지를 下限點으로 잡았다.

네째, 近世文學期는 前期, 過渡의 中期, 後期로 다시 細分하고자 한다.

前期를 李朝 建國에 起點을 잡았으나 麗末은 元의 屬國으로 文風이 大變하여 宋詩學과 稗官說話 詩話流의 批評文學의 盛行과, 麗末의 新學風인 性理의 宋學의 探究에 따른 儒佛思想의 交替 轉換期였고 특히 時調 歌辭文學의 發生으로 過渡期以上の 變革期였음을 考慮에 넣고 漠然히 李朝 建國期라 하여 近世前期의 起點으로 잡았다.

中期는 壬亂 丙亂이란 史上 未曾有의 國難期였을 뿐 아니라 이 時期는 韓民族에게 精神的 自覺과 反省을 促求하는 契機였고 諸般 歷史와 文化의 一大 轉換의 分水嶺의 時期가 아닐 수 없

었다.

近世後期는 實事求是의 實學의 風靡와 中庶階層의 覺醒에 따른 舞台進出과 文壇活動, 그리고 敎文小說의 發達과 時調의 發展, 판소리文學의 展開 등을 들어서 甲午更張까지를 한 時期로 區分한 것이다.

다섯째, 近代文學期는 韓國의 近代化를 뜻하는 開化期를 指稱한 것이다. 또 西歐文學의 <Modern Literature>를 應用한 것이다. 韓國의 近代化는 開化라는 名稱에 의해서 特徵지어진다.

開化란 文明 進歩 改革 民族自主意識 反封建의 體制를 廣範하게 의미하는 用語로, 넓게는 1860年 8月 英·佛軍의 北京陷落, 決定的으로는 甲午更張 以後 1910年 韓日合邦에 이르는 短期間에 유럽의 強大國(文明國)과 日本의 侵略過程에서 畸形的으로 이루어진 近代思想 宗教 文物制度 등 文化의 模倣—西歐의 것에 대한 韓國의 反復—을 말하는 것이다. 西歐의 近代(modern age)는 廣義로는 文藝復興 以後 奴隸解放, 宗教改革(16C), 産業革命(18C), 프랑스革命(1789) 등 歷史的 經驗으로부터 19世紀末까지를 通稱하며, 狹義로는 18世紀末부터 19世紀를 指稱한다.

近代思想이라고 하면 이러한 歷史的 過程을 통하여 이루어진 Humanism思想을 가리키며, 近代文學(Modern Literature)이라고 하면 이 時期 近代精神의 바탕위에서 成立된 文學을 말한다.

韓國近代化의 特殊性을 參酌하여 開化라고 부른다면 筆者 역시 近代文學이란 名稱은 適合치 못하다고 생각되기에 開化文學期라 하여 現代文學期와 區別코자 한다. 그리고 흔히 開化期를 過渡期라고 하는데, 새로운 思想과 思潮와 文學形態가 意慾으로 創造되고 新興 發展된 이 時期를 일컬어 混沌 沈滯을 뜻하는 過渡期라고만 規定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는 開化期에 의해서 새로운 文學史의 局面을 맞이한 것이다.

끝으로, 現代文學期는 1917年 春園 李光洙의 「無情」을 出發點으로 잡았다. 「無情」이 西歐의 近代小說(Novel)樣式에 接近하여 이룩된 創作物이라 함은 韓國現代文學史의 出發이 西歐의 近代文學思潮나 文學장르의 模倣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는 歷史的 狀況을 考慮하면 納得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現代文學史는 爾後 20世紀의 多樣 多彩로운 文藝思潮와 流派運動을 통해서 現代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以上과 같이 筆者는 韓國文學史의 時代區分을 六分期로 區劃하기를 試圖해 본 셈인데, 以下 각 時代 혹은 각 時期의 主潮·傾向·文學장르, 그 밖에 文學的事象에 대하여 簡略히 論及함으로써 拙稿 時代區分 試案의 補助的 論據를 삼을가 한다.

1. 韓國의 原始時代란 多少 不分明한 概念이기는 하지만 先史時代(pre-historic age)와 原史時代(proto-historic age)의 結合된 時代設定으로 이른바 古代(ancient age)와는 區別되는 民族(血緣)을 基本으로 하는 原始共同社會를 뜻한다. 그 期間도 確定하기는 困難하며, 考古學者나 史家의 一般見解에 따르면 紀元前 10,000년부터 紀元前 2—3世紀(B.C. 20C라는 說도 있음)까지를 어렵게 推算하고 있다. 原始社會는 血緣的 氏族共同社會로 母系社會요 群婚社會(gruppen Ehe)

였다고 한다. 祭政一致의 巫覡宗教의 規範 속에서 族制組織에 依據한 原始共産의 經濟社會로 生活手段은 遊牧 漁撈 農耕이었고, 勞動의 道具는 石器 骨器 土器 木器 등이었는데 그 중 磨石器(polishing stone)를 爲主로 하는 所謂 新石器時代(neolith)였다. 그들 生活의 中心은 自然에 대한 敬畏와 孤立無援한 感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祭天儀式과 生活을 위한 自然과의 鬭爭, 勞動과 勞動手段의 獲得이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祭儀의 主宰者인 巫覡(Shaman)은 崇高한 存在였고 Shamanism은 原始人의 宗教 信仰 思想 藝術 文化의 淵源이었다.

Y. Hirn의 「藝術의 起源」(Origin of Art)에서 指摘한 바와 같이, 原始 農耕社會에 흔히 있는 劇的 歌謠와 舞蹈는 東南亞細亞地域 固有의 天神崇拜(太陽神)와 結合해서 藝術祭典으로 行事되었을 줄 안다. 이를 主管하고 演出한 것은 巫覡이었을 것이요, 群衆은 參與者 追從者였을 것이다. 原始 農耕社會의 祭天儀式에 Shaman에 依한 宗教의 發想은 原始綜合藝術의 原型이다.

詩歌 音樂 舞蹈이 未分化한 chaos의 狀態가 原始綜合藝術의 特徵인 것이다. 文字로 定着되지 않고 集團의 行動과 集團의 感情의 發散으로 原始綜合藝術이 祭儀에서 起源하고 있다는 것은 世界文學史 共通의 패턴일 뿐 아니라 上述 韓國原始時代(先史時代)의 歷史的 社會的 諸事象으로 推理해 보더라도 古代와 本質의 區別되는 原始時代의 設定이 可能하며, 後代의 記錄이지만 夫餘의 迎鼓, 濊貊의 舞天, 三韓族의 祭儀 등으로 推理해 보건대 原始綜合藝術의 韓國의 存在樣式을 定立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¹⁹⁾ 原始綜合藝術의 樣式的 特性은 非個人的이며 非固定的이고 集團情緒의인 것이다.

紀元前 2世紀로부터 1世紀에 이르는 漢武帝의 四郡 設置는 이 땅에 漢字와 漢文化의 輸入을 招來했으며, 原始共同體의 崩壞와 強力한 支配者의 出現, 私有財産, 租稅 貨幣 鐵器의 使用, 手工業의 發達, 部族國家의 形成과 農業定着生活에 따른 奴隸制度의 發生 등 一連의 古代社會의 事象들이 展開되었음을 歷史家들은 記錄하고 있다. 그리하여 4世紀 三國鼎立期에 이르러 古代社會의 典型인 貴族制度⁽²⁰⁾와 奴隸制度⁽²¹⁾의 確立을 보게 된다. 新羅의 骨品制는 原始氏族制의 遺制로 三國 중 가장 典型的 貴族制度의 標本이라 할 수 있고, 高句麗의 奴隸는 部族間의 對立에서 所得된 奴隸였다. 新羅 貴族制의 發展은 花郎制度를 派生시켰으니, 花郎은 貴族의 理念的 象徵이었다. 이러한 花郎과 그의 集團은 또한 古代 文藝發展의 中心이요 原動力이었다. 外來文化의 影響은 漢四郡 設置後인 B.C. 1世紀, 이른 바 文明期로부터 漢文學과 結들여 儒敎 思想을 導入했다. 現今 漢譯歌로 남아 있는 「黃鳥歌」(B.C. 17) 「箜篌引」 「龜旨歌」(A.D. 41)는 這間의 狀況을 說明해 주는 것이다. 그리하여 A.D. 375年 百濟의 「書記」를 비롯한 高句麗의 「新

(19) 「三國志」魏志 東夷傳의 迎鼓(夫餘) 舞天(濊) 農耕祭典(馬韓) 弁韓의 歌舞飲酒 등을 原始綜合藝術의 例示로 본다.

(20) 「三國史記」에 <國人謂始祖赫居世至眞德二十八王謂之聖骨自武烈至永王謂之眞骨唐令狐澄新羅記曰其國王族謂之第一骨餘貴族第二骨>이라 하였으며, 徐居正의 「東國通鑑」에 <新羅設官有十七等一曰伊伐滄二曰伊尺滄三曰迎滄四曰波珍滄五曰大阿滄皆授眞骨眞骨王族也>, 「新唐書」에 <新羅其建官以親屬爲上其族名節一骨第二骨以自別兄弟女姑夷婦妹皆聘爲妻王族爲第一骨妻亦其族生子皆爲第一骨不娶第二骨雖聚常爲妾勝>

(21) 「三國志」夫餘傳의 <下戶皆爲奴僕>, 「舊唐書」<殺牛馬者沒身爲奴婢>의 奴僕奴婢와 三韓 部族國家의 奴隸 등은 家內奢侈奴隸, 單純勞動奴隸로 볼 수 있다.

集」(A.D. 600), 新羅의 「國史」(A.D. 545)의 編纂은 漢文學의 高度發展을 보여준 것이다. 古代의 中期에 접어들면서 絢爛하고 氣韻生動한 六朝文學이 韻文文學을 風靡했을 뿐 아니라 藝術全般에 多様な 變化와 影響을 주었다.

7世紀 初半期 新羅의 三國統一은 歷史의 一大 轉換期였다. 貴族制에 의한 專制的 封建制度를 確立하였고, 儒佛仙의 思想的 混線을 止揚하고 佛教信仰으로 統一 轉換한 信仰과 思想的 轉換期였고, 藝術文化面에 있어서도 盛唐 佛教文化의 影響을 받아 佛國寺 石窟庵과 같은 記念碑의 作品을 배출했던 것이다. 文學도 또한 「詩經」「文選」을 爲始하여 經世의 經典文學과 四六駢駢文, 唐의 今體詩 등 未曾有의 多様な 發展을 이룩하여 藝術과 文藝의 黃金時代를 나타내었다. 佛教信仰과 情熱은 稀世의 傑作을 創造하는 pathos였고, 佛教思想和 教理는 많은 靈異의 說話를 產出하고, 深奧한 世界觀과 人生觀, 그리고 深化된 精神世界를 形成했다. 自然과 社會와 人生을 誇張하고 美化하는 意慾表象은 그들 中世人의 文化的 基調였다. 僧侶와 花郎의 藝術理念을 形象化한 鄉歌文學은 統一新羅後의 爛熟한 佛教文化와 思想을 背景으로 釀成되었다. 이렇게 佛教文化 上昇期의 代表的 文學장르로서의 鄉歌는 潑刺하고 歡喜에 찬 抒情詩로 저 有名な 率居의 皇龍寺壁畫와 金大城의 佛國寺와 薛聰 強首 등의 學問과 代를 같이하여 新羅文學과 藝術의 記念碑의 作品이라 아니 할 수 없다.

高麗는 王建의 無血革命에 의하여 新羅를 統一한 後 政治 經濟 社會 文化를 通하여 新羅를 繼承했다. 光宗時에 科擧制度를 實施하여 中央集權의 封建官僚國家를 形成하여 16代 睿宗時까지 學藝와 文化의 上昇發展期를 이루었으나, 毅宗後 文武의 反目 鬭爭과 外敵의 侵略, 寺刹의 肥大化에 따른 經濟 社會의 貧困으로 文字 그대로 內憂外患의 極을 이루었다. 內憂外患과 不條理한 社會相을 反映한 文學의 장르로서 上層의 景幾體歌와 下層의 俗謠를 들 수 있다. 景幾體歌와 俗謠는 對立되는 文學樣式이라 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 文藝的 基調에 있어서는 同軌의 것이다. 퇴폐적 遊樂, 失意와 悲哀가 결들인 內容과 律調가 나타내는 素朴하고 抒情的이며 自然發生의 眞率味는 中世文學의 다른 한 側面이며, 그 特性인 것이다. 이렇게 內容 形式에 있어서 類型화된 高麗歌詞를 理解하면서 우리는 沒個人的 類型的 中世文學의 特徵⁽²²⁾을 찾아 볼 수 있을 것 같다.

한편 漢文學은 唐宋의 詩文學이 崇尚되고 崇蘇風이 流行했다. 墮落한 社會風潮 속에서 儒敎의 勸懲主義는 寓意와 教誨의 假傳體小說을, 詩話와 稗官의 結合은 雜記文學을 發展시켰고, 佛敎와 巫覡의 變質은 幻想 怪奇 神秘的 mystery를 낳았다. 이렇게 多様な 文藝장르가 展開되는 發展을 이룬 것이 韓國의 中世後期인 高麗文學의 樣式的 特色이었다고 생각한다.

同一時代, 類似條件下에서 生成된 文學의 諸事象 혹은 文學의 장르는 또한 類似的한 패턴을 가

(22) Brunntiere의 「L'histoire de la littérature Française」는 中世文學의 特色으로 Uniformité, Impersonnel, Immobilité 등 三大特色을 들고 있다.

질 수 있다. G. Lanson은 그의 「佛文學史」(Histoire de la littérature Française, 1894)에서 中世文學의 起源과 장르의 特質을 說明하면서 典型的인 文學장르로 說話(Narratifs) 敎誨文學(Didactiques) 諷刺(Satiriques) 散文詩(Prose ou Vers) 콩트(Contes) 笑劇(Farces) 寓意(Allégories) 등 多様な 장르의 發展을 지적하고 있다.

Dans Ce XIV^e et Ce Xr^e Siècle qui sont moins le moyen âge que la décomposition du moyen âge, fait naître et fleurir toute sorte de genres Narratifs, Didactiques, Satiriques, Prose ou Vers, Contes, Farces, Allégories.

韓國의 中世文學의 多様な 장르의 發展과 對比해 볼 때 一面의 樣式的 類似性을 찾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韓國文學史研究에 있어 中世와 中世文學期 設定은 可能할 수 있고, 또한 크나 큰 比重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中世文學의 代表的 樣式이라고 볼 수 있는 說話(Narratif)는 新羅 高麗를 통한 說話文學의 發展에 對比할 수 있고 諷刺(Satiriques)와 笑劇(Farces)은 說話의 派生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寓意(Allégories)와 Contes는 假傳體小說에서 그 類型을 찾을 수 있고, 儒佛의 勸懲文學은 一種의 敎誨文學(Didactiques)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 것이다. 이른바 中世의 特質은 文學과 歷史 속에 共存하는 뚜렷한 樣式이며 制度이다.

近世는 李成桂의 斥佛崇儒政策에 依해서 區劃되는 宗教思想의 轉換期인 李朝初를 起點으로 한다. 李朝 儒敎의 本領은 朱子の 性理學, 즉 道學으로 麗末 1313年 南京으로부터 많은 性理書籍이 輸入된⁽²³⁾ 後 鄭夢周 李穡 등에 의해서 唱導되었다. 李太祖는 篤實한 佛徒로서의 葛藤 속에서 새로운 學風인 道學으로써 民心을 收拾하고 政治支配의 理念으로 이를 내세웠다. 爾後 道學의 儒敎는 李朝五百年의 政治 經濟 社會 藝術 文化를 統制하는 規範이 되었다. 李朝五百年을 壓倒하던 이른바 經世文學의 思想的 背景과 淵源은 이렇게 해서 마련된 것이다. 忠을 重點으로 하는 節義心과 中庸의 枯淡性, 說敎的 敎誨性을 主潮로 하는 經世文學은 近世文學의 普遍性이요 特色인 것이다.

如斯한 道學의 儒者文學의 代表的 장르는 時調文學과 歌辭文學이다. 時調와 歌辭의 敎訓的要素(Didactive element)는 儒者文學의 當然한 歸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 時期의 劃期的인 事實은 世宗의 한글創制이니 歷史上 最初の 國字發明으로 말미암아 文藝創作의 無盡藏한 寶庫가 열린 셈이다. 諺解文學의 發展으로 譯語體文章을 발생시켰고, 後代 各種 文章의 軌範이 되었다.

近世前期의 安定은 7年에 亙한 壬辰倭亂으로 因하여 過渡的 轉換期을 當面하지 않을 수 없었다. 壬亂은 모든 것의 分水嶺이었다. 게다가 40年後에 다시 일어난 丙子胡亂은 民族意識을 鼓吹했고, 人間自我의 覺醒을 促求한 結果를 드러냈다. 이를 近世 中期의 過渡的 轉換期이라고

(23) M. Courant의 Bibliographie de Coréenne 序文 參照

보고 싶다. 이 過渡期은 새로운 文藝장르를 創造하지는 못했지만 다음에 올 近世後期의 多彩함과 變革된 文學樣式을 準備하는 期間이었다.

英祖로부터 甲午更張까지를 論者는 近世後期라고 指稱한다. 近世는 民族文化의 轉換期로서 散文文學이 發展化하고, 詩歌를 비롯한 모든 文學장르가 長篇化하고, 李朝 Realism文學의 極致를 이룬 판소리의 發展期였으며, 雜歌 民謠의 興盛期였다. 礪溪, 芝峯을 비롯한 實事求是學은 英祖時의 星湖 李瀼에 이르러 集大成되고, 丁茶山, 申景濬 등 星湖學派로 繼承 發展되었으며, 朴燕岩을 이은 實學四家の 輩出은 英正期의 文藝復興의 思想的 基盤이 되었다. 한편, 壬辰 丙子 兩亂을 겪은 近世 後期에 와서 中庶 委巷人의 社會的 進出에 수반하여 中庶階層의 文學 즉 中人文學의 顯著한 발전을 默過할 수 없다. 「靑丘永言」「海東歌謠」를 비롯한 많은 歌集의 編撰이라든가 散文小說의 創作, 松石園詩社와 같은 中人文壇의 活氣있는 發展相은 這間의 事情을 說明해 주는 것이다.

1894年 甲午更張은 傳統韓國의 큰 變革期였다. 1881年 韓美修好通商條約을 비롯한 西歐諸國과의 通商條約締結과 日本의 軍國主義의 侵略과 基督教 宣教師의 宣敎過程에서 畸形的으로 近代化의 길이 열린 韓國은 文物制度의 改革에 뒤이어서 近代의 開化思想의 鼓吹와 그를 主題로 한 唱歌 新體詩 新小說 新派劇 등 새로운 樣式의 文藝장르를 發展시켰다.

開化期文學에 反映된 政治性은 開化思想에 連結된 당시 現實과 社會의 反映이었다. 開化期文學은 近代를 指向하며 激動하는 變革期의 韓國에 있어 新舊 秩序의 交替를 實現키 위한 模倣된 西歐文藝의 樣式이었다

現代文學期는 1917年 春園 李光洙의 啓蒙小說「無情」의 發表를 起點으로 한다. 이어 1918年 金岸曙 등은 「泰西文藝新報」를 통하여 近代 外國의 作家 作品을 紹介하였고, 1919年「創造」는 自無主義(Naturalism) 文學思潮와 作品을 提出했다. 그 후「白潮」浪漫主義(Romanticism), 프롤레타文學(Proletarian Literature) 民族文學運動 등 유럽 近代의 文藝思潮를 受容하면서 同人誌 또는 流派運動을 通해 現代文學은 展開되었다. 1930年代에는 純粹詩運動을 비롯한 心理主義, 超現實主義, 모더니즘, 主知主義 등 各樣의 文藝思潮의 그늘에서 우리의 現代文學이 異質의인 成長을 이룩했다. 解放後의 現代文學은 世界文壇과 거의 並行해서 心理主義(精神分析學的), 實存主義, 新批評主義 등의 思潮가 한 때 文壇의 主流를 形成하기도 했다. 純文藝思潮나 同人誌나 流派運動을 通한 文學發展이 現代文學의 特色이라 볼 수 있다.

以上으로 韓國文學史를 大分하여 六分期로 나누었고, 각각 그 歷史的 文學的主潮와 樣式과 장르의 特質과 變化 發展의 樣相을 간단히 考察해 보았다. 그러므로서 筆者가 提示한 六分法의 史的妥當性의 또 하나의 論據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Period Divisions in the History of Korean Literature

by Suk-ha Kim

1. Literature and Literary History

In the traditional concept in the orient, literature had two different scopes, the broader and the narrower. The broader included all sorts of writings, or all the learnings in written form, that is to say, laws, regulations, belleslettres, as well as such classics as the Four Books(四書) and the Three Scriptures(三經), while at the same time the narrower scope covered only the more artistic writings such as poetry, fiction, dramas, etc.

During the time from the era of the former Chin(秦) to that of Han(漢) the former idea of literature reigned, literature being a term for all learnings and reading materials, and only in the eras of Wei(魏) and Chin(晉) and afterwards literature was understood in the narrower sense, assuming a specific position of its own. It is only since the eras of Tang(唐) and Sung(宋) that the term literature has been used to signify poetry and the prose art proper.

The traditional concept of literature in Korea had been somewhat similar to that of China until, with the inflow of western ideas in the period of new civilization(1860—1910), literature began to be understood as the literary branch of art, that is to say, the literary art or belleslettres, expressive of man's experience, visualized through imagination and described through the medium of speech.

Therefore, in the treatment of classical literature of the times when literature was subordinate to thoughts and philosophy the traditional concept of literature has to be taken into consideration in defining its scope of subject matter; but in the study of the new literature after the period of the new civilization or in the study of modern literature, the western ideas of literature should be adopted.

Literary history is a literary science to study and consider the origination of literature along with its trace of development throughout the times, and is also a systematization of its historical order.

Literary history is a broad history of literary creators and their works together with all that belong in the category; is also a developmental history to cover the origination, development and decline of all literary genres; is again a history of the social systems reflected upon literature; and at the same time is a history of the spirits of a nation in which their ideas and emotions are piled up.

While general history develops ordinarily by economic and political factors, literary history, in contrast, does by the more metaphysical factors. Here, naturally, is brought up the question of national spirit or the nationality, but this is in brief a spirit that aims at what is particularly of the nation, serving as the fountainhead and the impelling power of the nation's historical and cultural development.

Literary history is the history of the founders of various genres and their followers. The more outstanding a genre is the more followers and imitators, naturally the greater number of minor works it gives rise to. These comprise a remarkable group, assume a historical significance, and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literary history. The Seven Sages of the Bamboo Forests(竹林七賢), the circle of Gyeong-jeong-san poets, and the group of *pan-so-ri* authors are such examples. However, things like gyeong-gi-che style poetry are not to be considered in terms of founding and development of a genre but as a phenomenon brought forth from the stagnation and disruption of a genre. It is rightly to be considered that there occurred a genealogical gap here. As the values treated of in a literary history belong to the system of esthetic values literary history should also be studied on the basis of the esthetic creativity of man (or of a nation).

Viewed historically, the study of literary history began, as a link of the spiritual history of the 19th century, with the theory of evolution when the methods of natural science were adopted. It also started with the study of the groups of authors and writings classified by nation and by period, on the basis of the particular national spirit, when the concept and view of nationality were established through the rapid development of the science of history and philology. This is the most widely accepted way to study the history of a national literature, and when the relationships of a national literature with world literature are considered in addition thereto, it may be considered a classic methodology for the study of literary history.

Literary history is also a history of comparative literature. Even when a literature is created independently, foreign influences on, and their acceptance by, it undergo the antithetic and synthetic processes of dialectics. True, there were the extreme cases of adoption of Chinese styles of writing in Korea without the slightest change, but foreign elements are generally accepted through change of genres. Therefore, a study of the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between the emetteurs and recepteurs, of the sources, and of the intermediaries is very important in order to distinguish between the creative and adopted elements. Especially, in the study of the history of classical literature of Korea, which was influenced by the Chinese literature throughout, an attempt by the methods of comparative literature is an appropriate approach.

Although literature, being artistic creations, follows its own course of development, yet since it is also a reflection of human life the economic, political, social and cultural aspects of life are inevitably projected onto it, making up the background for the history of literature. New criticism of recent times, tended to analyze and evaluate literature only in its philological and artistic aspects, seems to lack in historical consciousness and intuition, and, therefore, is not regarded as the best ways of study of literary history. In my opinion, a study of the conformity and nonconformity, that is, the difference and similarity together with the inter-relationships between the character of a period —deduced firstly from the economy, secondly the politics, and thirdly the culture of the period—and the main currents and tendencies of the literature of the period, must be adopted as an important preliminary and auxiliary method.

Finally, as to the question of the literary works in Chinese characters, which has always caused arguments pro and con in the study of the literary history of Korea, I agree with Dr. Yun-je Jo in including those in Chinese letters, too, in the classical literature of Korea. However, I have to add a remark here: some of those forms Dr. Jo pointed out to be Korean literature in Chinese such as si(詩), bu(賦), ron(論), chaeg(策), seo(序), gi(記), bal(跋) and also those writings classified as traditional Chinese styles in Go-mun-sa-yu-chan(古文辭類纂—Assortment of Ancient Writings) such as ju-eui(奏議), seo-seol(書說), jeung-seo(贈序), jo-ryeong(詔令), bi-ji(碑誌), jam-myeong(箴銘), chan-song(贊頌), ae-je-mun(哀祭文), etc. should be dealt with separately from the literary history of Korea, and only those, which though written in Chinese characters,

are completely dissolved or assimilated to our literature in their contents, form, and styles can properly be included in the category of Korean literature.

2. Founding of Genres and Their Development

The theories of genres began when the methods of natural science were employed in the study of literature with the progress of science in the beginning of the 19th century. Genres of literature are, to borrow the terms of H. Wells, related with the literary genetics, that is to say, they are classified species of literature, the basic principles of the order of literature, the historically established divisions of literature.

Literature is approved of its *raison d'être* only when it has formed a group and mass: literary artists and their works are recognized and conferred their social and objective significance only after they have survived the tests of history; and literature in order to exist as an institution forms various groups. These groups, contemporarily, act upon other writers and writings, and, historically, are succeeded by posterity and affect history. Literary history, as developmental historical genealogies, includes theories of genres. Studies of authors, studies of works, and studies of literary circles are also included in it.

In European literature, after Homer's *Illiad* and Aristotle's epics many a follower and minor work in the category appeared; lyrical poetry attained to a literary genre in the era of Alexander, and melodic lyrics continued popular until some time around Renaissance to be succeeded by verbal lyrics which had lasted before they took up unmusical forms with the appearance of the *Lyrical Ballads* of Wordsworth and Coleridge. In Chinese literature, the genre of sa(辭) and bu(賦), originated in Tsu(楚), later developed into rhymed and prose bus, and the annotations of classics(傳記, biography? narratives?), which were popular in the periods of Sui(隋) and Tang(唐) after the era of the Six Dynasties(六朝), developed into prose fiction in Ming(明) and Ching(清).

In Korean literature, it is surmised that the legomenonistic(?) elements separated themselves from the all-inclusive primitive art and followed, on one side, a course of development into the narrative literature such as mythologies and legends expressive of religious devotion, and that they, on the other side, developed into lyrics where the emotions and thoughts of individuals were to be carried. As we find the song of welcome to the god at Gu-ji-bong(龜旨峯迎神歌) about the first century apparently related to *Hae-ga-*

sa(海歌詞) of Lady Su-ro(水路夫人) 700 years later, the song of Gu-ji-bong can be treated of as a source of popular lyrics, and *Do-sol-ga*(兜率歌) of the period of King Yu-ri(儒理王) is regarded as the first work of lyrical ballad, developed from songs to god.

Hyang-ga(鄉歌), originated around the sixth century, also have characteristics of lyrical ballads. They assumed regular forms in the course of change to hymns of praise to the Buddha, and became established as lyrical poetry of a fixed form. As a representative genre of refined lyricism, hyang-ga became the main current of Korean lyrical poetry, related in succession to the popular songs of Goryeo, the si-jo poetry, ballads, and jab-ga(雜歌—vulgar songs). This can be taken as a historical development that the genre of hyang-ga took.

The descriptive or narrative literature (myths, legends, etc.), due to the poverty of writing systems and epical background of history, remained for long a sort of unsteady genre, unable to develop into great epics. As Professor Dong-ug Gim has pointed out, the descriptive literature took the form of something like bon-haeng-pur-i(本行풀이), or a sort of shamanistic incantations, and was later, after the unification by Sinla of the three ancient kingdoms, adapted to narratives by imitation of jeon-gi(傳記) of Tang and the folk stories(稗官小說) of Han China. The genre of folk stories that rose and ripened in the four or five centuries from the post-unification Sinla to Goryeo represents the developmental history of the genre of narratives, but the narrative literature of this kind declined into an insignificant literature of secondary writers of prose in the Yi Dynasty.

In the prose fiction, the main current of the narrative literature, we count *Geum-o-sin-hwa*(金鰲新話) by Si-seub Gim(金時習) as the very first, and *Hong-gil-dong-jeon*(洪吉童傳) by Gyun Heo(許筠) as the first han-geul work, but these two are more romances than novels. As has been described above, the prose fiction of old times developed under the influence of Ming and Ching, but the source of the creation can be traced back to the ancient narratives and thus a diagramatic, developmental genealogy of this genre can be envisioned.

The tales by Yeon-am(Ji-weon Bag), mostly satires on the social conditions of his days, may be thought of as novels, but they found no followers for want of social or literary conditions ready for them. His works lacked writer's artistic consciousness and the readers were unequal to them. The tales were confined to didacticism based

on the Confucian (poetic) justice. The stories of old times, thus, remained a form incapable of further development into a modern literature.

Drama was more a folklore than be a literary form. It originated in the mask plays of ancient times, and mask plays constituted the main stream of Korean drama until the advent of modern drama much later. They were grotesque and stagnant, and this was seemingly a result of the general stagnancy of the orient throughout the period.

Essays and criticism never attained their full development in Korean literature. Jab-gi(雜記) after the fashion of folk stories showed a style adapted from Chinese writings only to record one's experiences and everyday impressions at random. There remains a group of writings in this category such as *Pa-han-jib*(破閑集) by In-lo Yi(李仁老), *Bo-han-jib*(補閑集) by Ja Choe(崔滋), *Nag-ong-pae-seol*(櫟翁稗說) by Je-hyeon Yi(李齊賢), *Baeg-un-so-seol*(白雲小說) by Gyu-bo Yi(李奎報), *Yong-jae-chong-hwa*(慵齋叢話) by Hyeon Seong(咸僊), *Dong-in-si-hwa*(東仁詩話) by Geo-jeong Seo(徐居正), *Sun-o-ji*(旬五志) by Man-jong Hong(洪萬宗), *Seo-po-man-pil*(西浦漫筆) by Man-jung Gim(金萬重), but these represent the development in Korea of the genre of jab-gi of Chinese literature. Nevertheless, these are works par excellence enriching both the volume and quality of Korean literature. At any rate, the essay-like criticisms and the criticism-like essays, in which the elements of essay and criticism are both intermixed, are characteristic of Korean essays and criticisms.

3. Theories of Transitional Periods

Since literary history, too, is a history, it is studied with significant epochs in which qualitative change takes place in literature. A theory of transitional periods is therefore a means of comprehension of a literary history, and is at the principle that makes it possible properly to divide the literary history into periods.

The transitional periods in literary history are marked by distinct changes and evident differences in many facts and phenomena of literature and literary activities—their stagnation, discontinuity, reaction, and also the appearance and rise of new genres—which should all be determined scientifically. Out of what desire and on what spiritual and physical foundations, for instance, was a certain significant literary work created? How and in what kind of relationships with the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

ral conditions of the period, that constituted the circumference of the transitional period, did this particular work exist? It must be a right way of the study of literary history to determine all these with the greatest objectivity, and thereby determine the historical co-ordinate.

It is important for the study of literary history, the more so in the study of ancient literature, where the independent development of literature was hampered, to try and find out under what conditions and with what consciousness a particular work was produced and was received. In the meantime, it is noted that, in spheres of lower cultures, a transitional period is prepared, outraneously, by importation, imitation, and influences of higher cultures. It was the case with the general history of Korea, which always underwent changes consequent upon the shifts of dynasties in China.

What, then, are the real substances and meanings of a transitional period in literary history? Transitional periods are the time of drastic changes in the thoughts and ideas of the people which make up the background to a literature, the time of epochal changes in literary genres and systems, an interim period, and the time of beginning. Here in the interim period preparations are being made for a new period even in the midst of momentary confusion or stagnation, and in the time of beginning founders' will is full. Foreign elements are either assimilated or expelled outright. And great masters' advent is looked forward to.

On the literary foundations of a transitional period the historical consciousness of the writer's creativity demands a demarcation of the period in the literary history by distinct measure, and herein is established a prescriptive system for division of literary history into periods. Only by such a division of the history into proper periods it becomes possible correctly to grasp and understand the true quality of a literary work and its writer alike.

I intend to divide the literary history of Korea into distinct periods by the theory and to grasp all our literary works by this division and the historical co-ordinate. To determine the epochal mementos for the division is by no means easy, but I wish to present the following hypotheses.

1. Active importation and borrowing of foreign literary genres (when influences of spheres of higher culture were great and dominant)
2. Fall and discontinuation of a specific formula of the time together with its repre-

sentative genre; advent of a new formula, of a new literary genre.

3. Decisive change or reformation of literature caused by political, economic, social or cultural upheaval.
4. Remarkable elevation of the national spirit; and the great strides taken in all the fields of culture as a result.
5. Rise of a new class capable of creating, and taking charge of, new genres of their own.
6. Great change in author and readers' view of creative works.
7. Advent of great masters.

Those given above are believed the practical conditions for a transitional period in literary history.

4. Ideas of Period Division

We go for dividing into periods in order to set historical phenomena in their correct historical perspective or to understand and grasp history with exactitude and objectivity. In this meaning period division can be the presupposition and conclusion in the description of history and is also the indicator to understanding history.

Now it is intended to outline the methods adopted for the purpose by outstanding historians in the past. A. Vico: a five-stage theory, advocating 1. beginning (premature), 2. progress (powerful), 3. civilization (mild), 4. decline (timid), and 5. end (corrupt). These processes are again summarized into three periods, that is, first, the creative and imaginative period (mythical); second, the period of willful ideas (of heroism and nobility), and third, the period of the logical mind (of humanism).

There are also the methods of natural science, shared by Darwin, Mill, Comte, Taine, Spencer, and Brunntiere: Of these, Comte advocated a positivistic view, speaking of man's progress from the theological to the scientific via the metaphysical state, while Spengler supposed that history is superseded regularly as are biological beings, trying to grasp it in its physical traits.

A third is the dialectical historical philosophy of Hegel, who took a view that the motivation that impelled history onward was the objective mind, and that mind is the absolute reason. Then Bachofen tried to explain the development of history in terms of its relationship with the state of religion.

Finally, there are the methods of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history. F. List was in favour of a theory of progress from the primitive, to the agrarian and to the agricultural-industrial states. F. Hildebrand's three divisions are for the natural economy, currency economy, and credit economy. Next Marx and his followers advocated their materialistic theories, which argued for 1. thesis (primitive communism), 2. antithesis (private property, feudalism, and capitalism), and 3. to a synthetic system.

All these arguments on the development of history have been outlined here for literature, too, is a historical, social and cultural phenomenon in its broader sense, and literary history is a division of history. In dividing literary history into periods, we should, therefore, separate those literary elements from the non-literary intermixed in general history to investigate their difference. At the same time it is important to study literary history on the basis of the correct period division, taking into consideration those characteristics of literary history that have had no same beginnings and endings as general history.

New I am going to review most of the more important books on the history of Korean literature published since Liberation, including *Jo-seon-mun-hag-sa* (History of Korean literature) by Ja-san An, to see various historians' ways of period division in them.

- A. Division by royal dynasties: *Gug-mun-hag-sa*—Sa-yeob Gim
- B. From the angles of economic and social history: *Jo-seon-mun-hag-sa*—Myeong-seon Yi
- C. By the methods of cultural history: *Han-gug-mun-hwa-sa-seo-seol*—Ji-hun (Dong-tag) Jo
- D. By the way of spiritual history with emphasis on the spirit of national studies: *Gug-mun-hag-sa*—Yun-je Jo
- E. By the methods of the history of religious thoughts: *Go-jeon-mun-hag-bae-gyeong-ron* (Background to Classical Literature)—Seong-eui Bag
- F. Classification by literary genres: *Mun-hag-sa*, of *Han-gug-mun-hwa-sa-dae-gye* (An Outline of the History of Korean Culture)—Korea University
- G. Similar methods as general history: *Jo-seon-mun-hag-sa*—Ja-san An

The above is a list, prepared for convenience's sake, of the principal aspects extracted from the various methods adopted by these historians in their books.

Jo-seon-mun-hag-sa, by Ja-san An, known as the first book of Korean literary history, followed the pattern of period division of Japanese literary history, but was an entirely new approach for the time, for until then studies of Korean literature had been buried in the general history and taken the form of mere assortments of classical letters of successive generations. An's divisions are:

1. Upper-ancient period: from Dan-gun to the Three Han period (about 2,000 years)
2. Mid-ancient period: the Three Kingdom period
3. Near-ancient period: from post-unification Sinla to the end of Goryeo (about 500 years)
4. Modern period: the Yi Dynasty period (about 500 years)
5. Contemporary period: from Gab-o Reform

In this way of division the historical concepts are not sufficiently clear and the independence of literature is ignored, yet the book as a whole should be duly appreciated as a pioneer in that it separated literature from other historical facts for the first time, and that a distinctively literary history was intended and conceived of, opening up a new field in the study of Korean literature.

Ja-san An's *Jo-seon-mun-hag-sa* was followed by the great book *Gug-mun-hag-sa*, by Dr. Yun-je Jo, after Liberation. Dr. Jo divided the history of Korean literature into the following nine periods;

1. Quickening period (before the unification by Sinla) : upper-ancient period
2. Formative period (post-unification Sinla) : upper-ancient period
3. Shrinking period (Goryeo) : mid-ancient period
4. Reviving period (King Tae-jo to King Seong-jong, of the Yi dynasty) : near-ancient period
5. Fostering period (King Yeon-san to the War of Im-jin) : near-ancient period
6. Developing period (Im-jin War to King Gyeong-jong) : modern period
7. Reflecting period (King Yeong-jo to Gab-o Reform) : modern period
8. Moving period (Gab-o Reform to the Independence Movement of 1919) : recent times
9. Restoring period (after the Independence Movement) : contemporary period

This book is noteworthy in that the approaches are based on a distinct view of history, that literature and non-literature are distinguished, that recognition of pure Korean and Chinese literature is clarified, and that emphasis is given on the spirit of

national studies and national consciousness. However, it is regrettable that a division of middle ages is omitted despite the importance of the period both in general and literary histories (an ambiguous division of mid-ancient period fails to claim to any historical objectivity). Middle ages, or medieval period, generally signifies the dark ages in world history, yet it was in truth the times of the greatest diversity, and in the history of literature, too, saw the development of a large variety of genres. In the literary history of Korea also, the times saw the ripening of *hyang ga*, advent of Goryeo *jang-ga* (long poetry) and *sog-yeo* (popular songs), development of folk stories, advance of *yo-gog* (songs), the gaining popularity of the poetry of Tang and Sung China along with the resultant criticism of poetry, etc. —all these being the precious heritage that the literature of post-unification Sinla and Goryeo periods have left.

To be exact, I hope to set up a division of middle ages in our literary history, and should like to divide the history of Korean classical literature, provisionally, and roughly, too, into the three periods: ancient, medieval, and modern.

Gug-mun-hag-sa of Dr. Jo was followed by Dr. Sa-yeob Gim's *Gug-mun-hag-sa*, first published in 1954. Dr. Gim paid attention to the characteristic modes of each period, classified by royal dynasties. The book is characterized by the presentation of the leading thoughts and ideas as the background to literature, and analysis of works and writers. It is more criticism than mere description of history, however.

This book is to be highly valued for the achievement in bestowing a historical position and literary significance upon our literature through his study of the specific ideological and spiritual background against which the literature of a period was shaped. But the history of dynasties does not necessarily correspond to that of literature, and in this discordance a fault of Dr. Gim's period division is found. His divisions, anyway:

1. Upper-ancient period: formation of tribal states and pre-diversification primitive art
2. Three Kingdom period: Chinese literature; miscellaneous plays; oral traditions; *hyang-ga* of Sinla; songs of Goguryeo and Baegje
3. Goryeo period: transition of Chinese literature; oral traditions; miscellaneous plays; Goryeo songs; *gyeong-gi-che* style songs; Chinese translation songs
4. Yi period: i) han-geul literature — *ag-jang* (songs and scores); embryos of prose-

- fiction; advent of ga-sa and dan-ga (short poems)
- ii) literature of rising period—development of ga-sa; nae-bang-ga-sa (women's poetry); dan-ga; gi-ryu-mun-hag (works of gi-saeng)
 - iii) literature of war period—transition of prose fiction; change of academic approaches; rise of dan-ga; influence of Chinese tales; essays; diaries; home stories; narratives based on folk tales
 - iv) literature of the period of Kings Yeong-jo and Jeong-jo—si-jo; four masters of the realistic school; popular literature; fiction in Chinese characters; fiction in han-geul
 - v) literature of the ending period of monarchy—circle of literature in Chinese characters; chang-geug (Korean counterpart of opera); popular song and folk songs
5. Modern era: rise of novela; new songs; new poetry; new drama; period of diverse literary circles; thoughts of unease; intellectualism; literature of dark age

Gug-mun-hag-jeon-sa (A complete History of Korean Literature) by Byeong-gi Yi, published in 1963, was based on the most outstanding views of history of all the studies in Korean literary history ever published after that of Dr. Yun-je Jo. Professor Yi took into consideration the relationship of Korean literature with world literature; clarified the inter-relationships of many literary facts in the development of a national literature; considered many literary historical conditions; and put a stress on the works in han-geul that appeared after the institution of this Korean alphabet in the 15th century.

Part I stressed more on the modern period but is divided in two sections, one dealing with the period of Goryeo and before, the other treating of Yi dynasty period. In the first section, period divisions are generally correspondent with different royal dynasties. The second section, however, is organized of descriptions of modes of the time, genres, works, and authors, thus attempting to grasp anew writers' ideological intent and also the historical characteristics of the times in which they lived, through comprehension, interpretation, and criticism of their works.

Although a literary history with great emphasis on literature in han-geul is an attempt desirable, it requires, however, reconsideration that we should in an overheat expunge all those literary works, in entirety, that, even if written in Chinese characters, have long been dissolved and assimilated to our literature. And in the period

division, too, we should hope to see periods set up for the time being, by the concepts of ancient, medieval, and modern with serious consideration of our own peculiarities.

Next, *Han-gug-mun-hwa-sa-seo-seol* (Introduction to Korean Cultural History, pd. 1964) by Professor Ji-hun Jo dealt with literary phenomena from the standpoint of cultural criticism. Its period divisions are:

1. Genesis—oral traditions (shamanistic incantations, folk songs, myths, and legends)
2. Blooming (post-unification Sinla)—hyang-ga
3. Troubled (Goryeo)—Sung China's cultural influences, essays, folk stories
4. Advancing (Yi dynasty)
5. Transitional (after the War of Im-jin; period of the realistic learnings)

His namings of Goryeo period as *troubled ages*, of earlier Yi dynasty period as *advancing* period, are examples of his cultural criticism. *Han-gug-mun-hwa-sa-seo-seol* also divides the development of Korean literature in two parts, the history of classical literature and the history of modern literature. The former, that is, the history of classical literature is subdivided into the first period (from oral literature and Chinese translations to ancient period) and the second period (from the period of literature in Chinese characters and ancient to hyang-ga poetry period). This way of dividing, though a little loose-ended, yet hit the point. Especially, the fact that works in Chinese characters are treated of as cultural heritages of our national literature is remarkable.

Go-jeon-mun-hag-bae-gyeong-ron (Background to Classical Literature) by Professor Seong-eui Bag is centered on the currents of thoughts of each period, allocating spaces to upper-ancient period (shamanistic primitive faiths), mid-ancient period (pervasion of Confucian, Buddhistic, and Tao-istic thoughts), near-ancient period (Buddhistic), modern period (Confucian), and recent period (after mid-19th century-world thoughts). The Literary History, of the series *An Outline of Korean Cultural History*, published by the National Culture Research Institute of Korea University, contains a classification into history of oral literature, history of poetry, and developmental history of fiction. The book, founded on methods of criticism, is divided in the representative genres, but on account thereof the superstructure formulae of genres are not paid heed to. Because of a joint authorship, this book leaves much to be desired in consistency.

Literary history is a literary science to grasp the pattern and line of the development of both literary phenomena and literary events that take place in time and his-

torical sequence, comprehend their interaction, relationships and influences, and combine and study these on the basis of man's (or a nation's) creativity.

And as has been outlined in the section on the theory of transitional periods, the transitional periods serve as standards in determination of literary epochs. But the transitional periods here are different from ordinary intervening span of time. I think intervening times mean the times of disorder, that merely bridge a period of no change, nor creation, with another period, while the transitional periods that I suggest here are times that are by no means changeless or still or calm, but times when things of the preceding period undergo qualitative change, and something new puts forth buds, stirs and is erected even in turmoil.

I now remind myself of the seven conditions, given in the preceding chapter as hypotheses for turning points, to apply them to our literary history, requesting criticisms and advice from eminent scholars of the field. My proposed divisions are:

1. Primitive pre-diversification art period (from the prehistoric and primitive ages to the establishment of the Four Han Prefectures in Korea)
2. Ancient literature period (from after the Four Han Prefectures to the unification by Sinla via the Three Han and Three Kingdom periods)
3. Medieval literature period (from post-unification Sinla to the end of Goryeo)
4. Modern literature period (from the founding of the Yi dynasty to its end)
 Early modern—from the founding of the Yi dynasty till the War of Im-jin
 Middle modern—from the Im-jin War to the War of Byeong-ja year
 Later modern—from the time of King In-jo's reign till Gab-o Reform
5. New (civilization) literature period (recent period from Gab-o Reform till the appearance of *Mu-jeong* a novel by Gwang-su Yi, in 1917)
6. Contemporary literature period (from *Mu-jeong* to the present)

The bases for these divisions are: firstly, the primitive literature and the ancient literature are different from each other in volume, quality, and sources, and it is felt appropriate to compare and distinguish the historical background conditions that gave rise to these two distinct literatures.

Secondly, I think the ancient literature started after the founding of the Four Han Prefectures on the peninsula for I believe it was only at this time that the Chinese culture along with the Chinese writing system began to be imported. It was also at

this time that the unity of religious rites and politics in the primitive society disintegrated, the tribal states began to assume ancient society's characteristics, and the all-inclusive primitive art started its course of specification and diversification.

Thirdly, the period of medieval literature was the period of autocratic, feudalistic, aristocratic state and during this period the Confucian, Buddhistic, and Tao-istic ideas, and especially the Buddhistic above all, dominated the religious, emotional and ideological lives of the people. It was also in this period that the style of latter-day poetry (今體詩) flowed in from China. I place the lower limit of this changeful period at the end of Goryeo dynasty.

Fourthly, the earlier modern period comes with a transition period in later days of Goryeo. The last days of Goryeo were more than an interim period. In those days, the literary atmosphere underwent great changes by the influence of Yuan China, one of whose tributaries Korea then was. Poetry of Sung(宋) was vigorously studied, folk stories(稗官說話) became popular, criticisms of poetry wide spread, seong-ri-hag philosophy gained power, si-jo and ga-sa appeared. This transition period came to an end and a new era opened up with that replacement of Goryeo by the Yi dynasty.

The middle modern period was full of events such as the two unprecedented national crises, the wars of Im-jin and of Byeong-ja, and served as a moment of spiritual awakening. It was a great turning point in the national history and culture. And the later modern period saw the growth of the realistic learning school, the awakening and advance of middle class, the development of prose fiction and si-jo poetry, the great popularity of pan-so-ri plays, etc. This period lasted till Gab-o Reform.

Fifthly, the more recent past is called by the name of new civilization period. The turning point was characterized by the busy importation of western civilization, great progress in culture, brisk reformation in various phases of life, awakening of national consciousness to self determination, institution of anti-feudal systems, beginning of trading with foreign countries, etc. Finally, the contemporary literature period began with the appearance of a novel, entitled Mu-jeong, by Gwang-su Yi, in 1917. With this as a starting point, Korean literature began to approach the novel form of novels in European literature. Multifarious and colourful literary thoughts and literary schools of a large variety began to flow in concurrently. A new period was doubtless ushered in by Mu-jeong.